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과거제도의 시행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RAHEL PLASSEN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과거제도의 시행

지도교수 정 요 근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RAHEL PLASSEN

RAHEL PLASSEN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원장 남동신 
(인)

부위원장 정요근 
(인)

위원 김경숙 
(인)

[국문초록]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과거제도의 시행

RAHEL PLASSEN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본 논문은 10세기 고려의 과거제도 시행을 재조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과거제도의 시행 목표를 일관되게 ‘왕권 강화’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의미만을 염두에 두는 이해방식이다. 동시에 과거제도의 시행 자체가 유발하는 의문도 남아있다. 광종대는 왜 소수의 급제자만을 선발하였는가? 이들은 왜 광종대에 의미 있는 관직을 역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가?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광종대는 외교를 활발히 펼친 시기이기도 하다. 광종은 오대십국 국가들과 ‘전방위적 외교’를 펼쳤으며, 이 사실은 당시의 국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한다. 10세기는 당의 멸망으로 인해 다수의 황제국이 세워진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논문의 1장에서는 광종대의 전방위적 외교가 황제국 체제에 입각한 외교였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광종대의 여러 개혁과 제도 시행은 황제국의 표방과 보조를 같이한 것이었다.

여기에 과거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외교문서의 작성과 전달이 중요해진 시기에 이를 담당할 인재들은 줄어든 상태였다. 광종대 쌍기의 주도 하에 치러진 과거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당시 제술과는 四六駢儻體의 작성 능력을 시험하였는데, 이는 국내 공문서와 외교문서에 대표적으로 쓰이던 문체였다. 2장의 핵심 논점은 외교문서 작성 역량이 과거제

도를 통해 길러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광종은 당시 인적 수요를 관료 선발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0세기 후반 과거제도의 운영은 당시 당면한 외교 과제와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송 관계에서 과거급제자들의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종대 송과의 관계를 살펴면 966년에서 972년까지는 교류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고려에서 과거제도의 시행도 정체되었다. 이 사실은 과거제도가 오로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송의 중원 통일을 계기로 한 과거제도의 재시행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마지막으로 지공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쌍기와 왕옹과 같은 귀화인의 역할이 광종 초기의 과거를 넘어서 성종대 말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10세기 후반, 성종 16년을 기점으로 지공거의 역임 시 관직이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과거제도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광종이 과거제도의 시행을 통해 추진한 외교 역량의 강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국제 관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 10세기 과거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10세기, 과거제도, 광종, 횡제국, 대외관계, 전방위적 외교

학 번: 2018-29385

목 차

머리말	1
一. 1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과거제도 시행의 배경…	5
1. 당 멸망 이후 다원적 국제질서의 전개	5
2. 광종대 황제국 체제의 수립과 전방위적 외교 활동 …	11
二. 과거제도의 시행과 외교 역량의 강화	24
1. 외교문서 작성 역량을 갖춘 관료의 선발	24
2. 10세기 후반 대송 외교와 과거제도의 연동	34
맺음말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6

표 목 차

[표 1] 고려와 후주의 교류	15
[표 2] 광종대 과거 급제자의 진출	35
[표 3] 광종대 고려와 송의 교류	41
[표 4] 광종대 과거 시험 시행 및 대송 외교	42
[표 5] 10세기 후반 지공거의 동향 및 지공거 관직	44

지 도 목 차

[지도 1] 五代十國 지도	6
----------------------	---

머리말

해방 이후 고려 초기 연구는 光宗(925-975)의 왕권 확립에 집중하였다. 광종의 재위기간(949-975) 동안 차례대로 이루어진 奴婢按檢法과 科舉制度의 시행, 公服의 제정 및 수도의 개칭은 모두 ‘왕권 강화’라는 명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었다.¹⁾ 광종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그가 이전 왕대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惠宗과 定宗은 재위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호족 세력의 도전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아들인 광종이 태조의 정치를 계승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광종의 개혁 중 가장 주목되는 제도는 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적 특성과도 연관되는 제도로서 광종대 뿐만 아니라 고려 사회에 대한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958년에 시행된 과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의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고려 초기 과거제도를 다룬 해방 이후 연구를 검토하면, 그 시작에 김용덕²⁾의 논문이 있다. 그는 광종이 왕권 확립에 ‘열렬한 희망’을 가졌다 고 보았으며 과거제의 시행 또한 이와 같은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이후 과거제도의 시행 목표는 일관되게 ‘왕권 강화’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되었고, 1974년 《한국사 4》에서 통설로서 정립되었다. 여기서 광종의 치세를 최승로의 평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여 특히 광종 7년에서 11년에 이르는 시기를 호족세력의 제거와 왕권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한 시기로 보았다. 반면 과거제도를 제도사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당시의 기능보다는 제도의 원형을 찾는데 주력하였다.³⁾ 《고려의 과거제도》와 같은 종합적인 연구도 지방의 토호를

-
- 1) 하현강, 1974 〈豪族과 王權〉 《韓國史 4: 高麗 - 高麗 貴族社會의 成立》 국사편찬 위원회, 132-133쪽.
 - 2) 김용덕, 1959 〈高麗 光宗朝의 科舉制度問題〉 《중앙대학교논문집》 4. 그보다 한해 일찍 출판된 조좌호의 논문도 있지만, 과거제도의 내용과 고시절차 등을 검토한 그의 글은 과거제도의 시행 목적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았다. 조좌호, 1958 〈麗代의 科舉制度〉 《歷史學報》 10.
 - 3) 현재까지 고려 초기 제도사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의 국내적인 조건과 한반도 국가

포섭하고 귀족화한 구세력을 축출하는 일을 과거의 주된 목표로 보아 호족세력 억제를 통한 ‘왕권 강화’로 귀결되는 설명을 제시하였다.⁴⁾

그런데 고려 초기 ‘豪族聯合政權說’이 최근에 들어서 비판되기 시작함으로써, 광종대 초반 호족 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⁵⁾ 이에 따라, 왕의 주도하에 시행된 일련의 개혁을 ‘왕권 강화’라는 용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는 왕권 강화가 모든 국왕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국왕 개인의 특수성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권’의 정의가 모호하였을 뿐더러 기존 연구에서 권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왕권 강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고려 국정운영상의 다양한 과제와 당시 사회에 대한 고찰과 이해, 그리고 거시적인 맥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앞서야 한다고 본다.

특히 10세기 고려의 내부적 움직임과 변화는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광종대의 대외관계를 다룬 연구는 주로 오대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⁶⁾ 최근 연구에서는 특히 고려가 후주·남당·오월과의 관계에서 펼친 ‘전방위적 외교’를 설명하면서, 이로부터 가능해진 새로운 문물의 도입과 제도의 정비를 높이 평가하였다.⁷⁾ 그러나 새

의 시대적 특징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 제도 연구는 고려시대 전반을 다루는 제도사 연구의 일부를 차지한 경우가 대체적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행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기백, 1968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변태섭,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일조각; 이기백, 1981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박용운, 2000 《고려시대 中書門下省宰臣 연구》 일조각; 이정훈, 2007 《高麗前期 政治制度研究》 혜안; 그밖에 언급할 수 있는 광종대 정치·제도사 논문으로 김두진, 1979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 15; 전기웅 1985, 〈高麗 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 《釜大史學》 9; 김용선, 1993 〈光宗 - 改革의 挫折과 繼承〉 《한국사시민강좌》 13 등이 있다.

- 4) 허홍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36-37쪽.
- 5) 호족연합정권설을 상대화하거나 비판하는 연구는 적지 않게 존재한다. 엄성용, 1986 〈고려초기왕권과 지방호족의 신분변화 -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한 검토〉 《고려사의 제문제》; 김갑동, 2005 〈호족연합정권설의 문제〉 《고려전기 정치사》 등 참조.
- 6) 국내 연구 가운데 이기백의 〈高麗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關係〉 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에 광종대 국제관계를 연호 사용을 통해 접근한 김상기의 〈고려 광종의 치세〉가 발표되었다. 이기백, 1959 〈高麗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關係〉 《論叢》 1, 이화여대; 김상기, 1959 〈고려 광종의 치세〉 《국사상의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
- 7) 김대식, 2010 《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 경인문화사, 136쪽.

로운 접근 방법을 활용한 최근 연구도 광종대에 시행된 제도를 국내적인 개혁 및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의 이해 방식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도입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살핀 연구로 〈高麗初 科舉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를 주목할 수 있다. 강희옹은 특히 쌍기를 통해 과거 제도가 고려 사회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살폈다.⁸⁾ 저자는 후주 황제들이 단행한 개혁과 광종대 개혁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제도와 관련해서 군주들이 무신 위주의 정부체제를 官僚的 文治體로 바꿈으로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저자도 직접 지적했듯이 광종대 급제자의 수로 미루어 볼 때 이 제도가 기존의 중앙관리 등용방법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강희옹은 이에 광종의 과거제에 대한 주된 관심이 ‘과거제 자체가 가진 가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⁹⁾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모방을 위한 모방으로 귀결되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광종은 과거제도를 통해 문신관료제를 이루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왕권 강화라는 동일한 목표 하에 실행된 후주 개혁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당시 고려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기에 과거제도가 시행되어야만 했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과거제도의 시행을 국제적인 시각, 그리고 당시의 필요성을 고려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사 연구에서 10세기에 대한 이해가 본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광종대의 시기적인 맥락을 헤아리기 위해 이를 참고해야 한다. 일찍이 Rossabi의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 대상이 중원에서 중국적 천하를 천명한 중원 주변의 국가들에게로 옮겨갔다.¹⁰⁾ 현재 영미권의 중국학학계에서 오대십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더 이상 혼란

8) 강희옹, 1970 〈高麗初 科舉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한국의 전통과 변천》 275쪽.

9) 강희옹, 1970, 앞의 논문, 267쪽.

10)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의 시기가 아니라 굳건한 국가의 형성기로서 송이라는 통일왕조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는 추세다.¹¹⁾ 남중국 국가에 대한 경제사적 연구도 십국이 중국사의 역사적 전개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였다.¹²⁾

글의 첫 장인 ‘1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과거제도 시행의 배경’은 먼저 당 멸망 이후 다수의 황제국이 세워진 국제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이와 연결지어 광종대의 황제국 표방과 과거제도가 시행된 맥락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외교문서 작성에 능통한 관료에 대한 수요와 이를 사륙변려체 작성 능력을 시험한 과거제도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대송 외교에서 과거급제 출신자들의 역할과 과거의 운영과 외교 사행 간의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이 시기 과거제도를 통한 고려의 외교 역량의 강화를 살펴보자 한다.

10세기를 이해하기 위해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뿐만 아니라, 역사서가 아닌 사료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사료가 소략한 고려 초기에는 墓誌銘과 碑文을 통해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찰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외교의 측면에서 중국 측 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五代會要》는 광종대와 동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舊五代史》과 《新五代史》 그리고 《冊府元龜》를 통해 고려 쪽 기록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 대외관계사학계에서 참고하기 시작한 《陸氏南唐書》와 《十國春秋》가 있다.

-
- 11) Paul Jakov Smith, "Introduction"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 Part One: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ed.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4.
 - 12) Hugh Clark, “Why Does the Tang-Song Interregnum Matter?: A Focus on the Economies of the South.” *Journal of Song-Yuan Studies*, Volume 46, 2016.

一. 1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과거제도 시행의 배경

1. 당 멸망 이후 다원적 국제질서의 전개

동아시아 역사에서 10세기는 혼란의 시기로 알려져 있다. 혼란의 시작은 907년 당의 멸망이었다. 8세기 말부터 당 사회에는 내부적 균열이 있었으나, 중국적 천하를 상징하던 당의 멸망은 중원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中華를 대표하는 권력자의 부재는 ‘권력 공백(power vacuum)¹³⁾’을 낳았다. 이 공간 안에서 중화 문화를 전유함으로써 중국적 천하를 자부하는 국가들이 흥기하였다. 당 멸망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皇帝國¹⁴⁾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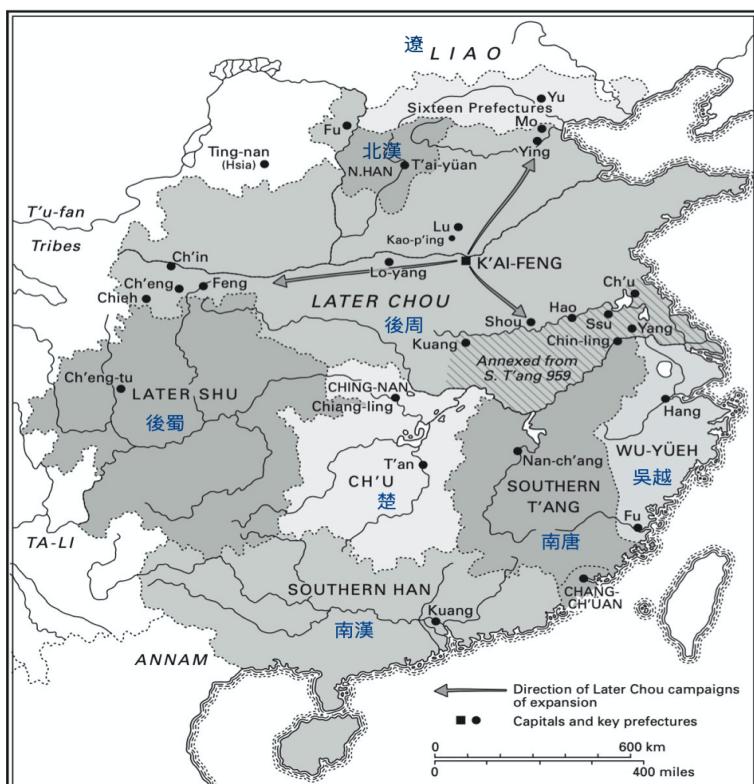
화북 지역에서 당의 계승을 명분으로 五代가 차례대로 나라를 세웠다. 907년 朱全忠이 당나라 황제의 제위를 찬탈해 後梁(907-923)을 건국하였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크다. 그가 제위에 오르면서 중화를 대표하는 통일왕조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의 절도사들에게도 기존 체제에 저항하거나 왕국을 세울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¹⁵⁾

13) Edmund Worthy는 그의 논문에서 같은 맥락에서 “political vacuum(정치적 공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권력 공백’으로 바꾸어 말하고자 한다. 물론 권력 공백은 권력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강력한 중앙의 권력을 대체할 권력자의 부재를 의미한다. Worthy, Edmund H., Jr. “Diplomacy for Survival: Domestic and Foreign Relations of Wu Yüeh, 907-978.”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참고.

14) 어떠한 국가가 황제국이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다: 독자 연호의 사용, 王爵 수여, 詔書 반포와 신하들의 ‘表文’ 상납, 天下를 대상으로 한 통치, ‘폐하’라는 칭호 사용 등. 최종석, 2015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6-9쪽 참조. 이러한 제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도 황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특히 ‘外王內帝’ 체제에서 대외적으로 황제의 위상을 갖지 못함과 동시에 기타 황제국 제도를 시행한 현상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 본 글에서는 실제 ‘황제국’이느냐의 질문을 제쳐두고, 무엇보다 ‘황제국을 지향한 국가’를 ‘황제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5) Worthy, Edmund H., Jr., 위의 논문, 1983, 20쪽.

오대와 함께 淮水 이남에는 십국으로 분류되는 吳·南唐·前蜀·後蜀·南漢·楚·吳越·閩·南平 및 北漢이 건국되었다.¹⁶⁾



Map 9. Territorial expansion under the Later Chou, c. 959.

<지도 1> 五代十國 지도

Naomi Standen, "The Five Dynastie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 Part One: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ed.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119.

오대십국이 흥망을 거듭한 10세기에 중국 북방의 遼, 西夏, 남방의 베트남 왕조 그리고 동쪽의 고려가 황제국을 세운 현상은 이미 당연지사처럼 서술된다. 그만큼 당이 가졌던 관념적 권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동시에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국정 체제는 서로 다른 지리적·정치적 조건 하에서도 공통적으로 당제를 모범으로 삼았다.¹⁷⁾ 이들 국가들은 서로를 외국처럼 대우하며 동등한 외교상대로 인식하였

16) 실제로는 최대 일곱 국가가 동시에 공존하였음으로, '십국'이라는 용어도 최근 연구에서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Hugh Clark, 2016, Op. cit., p. 2.

17) 김대식, 2010 『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 경인문화사, 43쪽.

다.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 체제는 송이 통일된 시점까지 지속되었다.¹⁸⁾

우리는 10세기 초반을 ‘五代十國’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은 송대 역사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오대’라는 명칭은 薛居正이 작성한《五代史》로부터 시작되었으며, 《五代史記》의 집필자 歐陽修는 이에 남중국 국가들을 지칭하는 ‘십국’이라는 명칭을 더하였다.¹⁹⁾ 오대에 비해 ‘십국’은 분명한 위계질서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는 구양수가 송나라의 시선에서 역사를 회고하며 정통성에 차이를 드러내도록 서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십국 중에서도 황제국을 표방하고 稱帝建元하는 경우가 있었다.

吳越(907-978)이라는 국가가 그 대표적인 예다. 923년 후량에 의해 서 ‘吳越國王’으로 책봉된 錢鏗(852-932, 재위: 896-932)는 곧이어 황제국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0세기 초 탑비에 따르면 전류가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러나 후주와 송의 군사적 성장에 맞추어 오월은 점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南唐(937-976)의 전신인 吳(902-937)나라는 920년대부터 북방에 대한 사대를 거부하고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였다. 同光 원년(923), 후당은 건국 사실을 알리는 詔書를 보냈다. 그러나 오는 이미 황제를 칭하고 있었기에 조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결국 후당의 황제가 문서식을 조서가 아닌 書翰식으로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교섭을 이어갈 수 있었다.²¹⁾ 후당이 멸망하자 徐知誥(烈祖, 재위: 937-943)가 오나라 왕위를 찬탈해 국호를 ‘大唐’으로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李昇으로 개명하였다. 당나라 황족의 성을 채택함으로써 스스로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자신이 건국한 대당이 멸망한 당의 뒤를 이을 정당한 계승자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가 이변이 세운 국가를 ‘南唐’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송대 역사가들에게서 비롯된 관행이다. 이들이 ‘남당’ 혹은 ‘僞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10세기 ‘대당’의 황제는 북방 왕조에 대한 표면적인 사

18) Worthy, Edmund H., Jr., Op. cit, 1983, p. 18-19.

19) Hugh Clark, Op. cit., 2016, p. 2; 한편, 《五代史》는 《舊五代史》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五代史記》는 보통 《新五代史》라고 알려져 있다.

20) Worthy, Edmund H., Jr., Op. cit., 1983, p. 25-26.

21) 정동훈, 2016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46쪽.

대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실제로 중국의 통일을 계획하였다.²²⁾ 뿐만 아니라 남당은 당나라와 가장 유사한 황제국 체제를 운영하였는데, 이 시기에 당의 3성6부제를 가장 원안에 가깝게 시행한 나라로 보인다. 당의 계승을 명분으로 삼은 남당은 당나라 초기 과제제정의 형식을 답습하여 율령을 반포하고 이에 따라 당제를 복원하였다.²³⁾

오월과 남당의 긴 존속 기간은 북방의 거듭된 왕조 교체와 대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쪽 지방이 중원 왕조를 개창한 오대보다 더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 조정의 권위 상실과 북쪽 지방의 혼란으로 인한 다수 난민의 남쪽 이주와 남중국 국가들의 교역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적 성장의 결과였다.²⁴⁾ 지역 간의 무역은 점차 국제적 무역으로 발달하였다.²⁵⁾ 이렇게 남중국 국가들은 변영의 시기를 경험하였다.²⁶⁾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고려의 제4대 왕인 광종이 즉위한 949년 즈음의 국제정세를 살펴보자. 먼저 951년 郭威(太祖, 904-954, 재위: 950-954)가 後周(951-959)를 건국하였다. 같은 해에 吳를 계승한 황제국 남당이 복건의 閩(909-945)에 이어 楚(907-951)를 합병하여 湖南과 貴州 지역을 평정하였다. 남당은 이미 현재의 江西, 安徽 그리고 江蘇 등의 남중국 지역을 지배하에 두고 있었던 국가로, 이로써 남중국의 패자로 부상하였다. 한편 후주는 건국하자마자 북쪽과 남쪽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후주 세종은 954년(광종 5) 거란의 지원을 받은 北漢의 침략을 禁軍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²⁷⁾ 다음으로 세종은 남당에 집중하였다.²⁸⁾

22) Benjamin Brose, *Patrons and Patriarchs: Regional Rulers and Chan Monks during the Five Dynasties and Ten Kingdoms*. Studies in East Asian Buddhism, 25, 2015, p.25.

23) 김대식, 2010 앞의 책, 34쪽 35번 각주. 남당의 관제는 남당 昇元 6년(942)에 반포된 《昇元刪定條》라는 기본법전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당 중기의 관제에 따랐으며 당말오대의 영외관이 반영된 구조이다. 김대식, 2010 앞의 책, 126쪽.

24) Hugh Clark, Op. cit., 2016, p. 9-17.

25) Hugh Clark, Op. cit., 2016, p. 18-19.

26) 남쪽에서 일어난 변화가 10세기에 가속화되어 결국 송대를 규정하는 경제개혁을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Hugh Clark, Op. cit., 2016, p. 27.

27) 김대식, 2010 앞의 책, 106-107쪽.

28) 955년에 시작된 남당 평정은 반세기 만에 처음 목격되는 오대 국가의 淮水 이남 국경 확장 시도였다. Worthy, Edmund H., Jr., Op. cit., 1983, p. 30.

이렇게 후주가 남쪽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방의 거란이 겪고 있었던 황실 내의 혼란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광종 즉위 2년 전인 947년 거란의 太宗 耶律德光(902-947, 재위: 926-947)가 후진을 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국호를 중국식 명칭인 ‘大遼’로 고쳤다. 이는 중국을 아우르는 제국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²⁹⁾ 그러나 요 태종은 남중국을 평정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사망하고 말았다. 950년대 거란은 태종의 뒤를 이을 황제의 정통성 문제로 혼란에 빠졌다.³⁰⁾

종합하면 광종 초기는 후주, 남당, 그리고 거란이라는 세 황제국의 건립과 확장을 목격할 수 있는 시기였다. 특히 십국에 속하던 남당이 남중국을 평정하고 황제국을 세운 사실은 북방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인 국제질서의 성립은 통일정권의 부재로 인한 중국 대륙에서의 ‘권력 공백’이 전제가 된 결과였다.

과거제도는 10세기 여러 황제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었다. 오대시기에 과거는 다섯 번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되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시기에도 정기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또 심각한 인사 적체에도 불구하고 매해 과거를 시행한 사실은 오대 군주들이 과거를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후주 태조는 광순 3년(953)

가. 국가가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儒學의 科를 설치한 것은 학업을 비교하고 재주를 가려서 어진 이를 등용하고 준재를 기용하기 위함이다.³¹⁾

라고 하였다.³²⁾ 이는 당시 후주 태조가 과거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얻고자 한 바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심은 광종을 포함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다른 국가의 군주들도 동일하게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한국사 15.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81쪽.

30) 김대식, 2010 앞의 책, 106쪽. 요 태종의 뒤를 이은 거란 세종(재위: 947-951)은 황실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승자로 부상했지만, 황권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세종뿐만 아니라 그를 계승한 목종(재위: 951-969)도 살해되어 세종의 아들 경종(재위: 969-982)이 황위에 올랐다.

31) 《冊府元龜》 卷642 貢擧部. 故. 國家開仕進之路, 設儒學之科, 校業掄才. 登賢舉俊.

32) 김종섭, 2005 〈五代 科擧의 施行과 作用〉 《中國史研究》 36, 144쪽.

그러나 당시에 오대 왕조만이 과거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 《十國春秋》를 통해서 우리는 남당에서도 과거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당 先主 昇元 연간(937-942) 조정은 經義와 法律에 능통한 자들을 선발하였다.³³⁾ 남당은 대체로 明經이나 明法에 해당하는 지식을 지닌 자들을 등용하였다.³⁴⁾ 이는 당시 남당 국가의 필요성에 따른 관리 등용 방법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資治通鑑》에는 남당에서 952년 2월 4인을 선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⁵⁾ 이는 고려에 과거가 처음 시행된 958년과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고려가 후주뿐만 아니라 남당의 과거 운영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성이 있다. 민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남당의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남당 또한 학문적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알려준다.³⁶⁾ 그러나 무엇보다 남당에서 황제국을 표방하고 과거제도를 시행한 사실 자체가 고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것이다. 즉, 고려에서 과거제도의 시행은 위와 같은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북방 왕조뿐만 아니라 남중국에서도 과거가 시행된 사실이 배경으로 되었다.

958년에 고려에 과거가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에 중원에서 宋(960-1279)이 건국하였다. 그러나 오대시기의 다원적 국제질서가 960년 송의 건국으로 일원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송이 당에 버금가는 문명국가를 세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건국 직후부터 통일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후주 세종이 거란 정벌 중에 병사하자, 중원의 통일전쟁은 송의 건국자 趙光胤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그는 965년부터 後蜀, 南漢 등 남중국 국가들을 침략하고 976년에 남당, 978년에 오월, 979년에 북한을 평정하여 중원을 통일하였다.

이렇게 송이라는 통일국가가 세워지기 전, 오대십국의 분열 상태는 70

33) 《十國春秋》卷28 南唐十四 列傳 徐鐸傳. 昇元中，議者以文人浮簿，多用經義法律取士，鐸恥之，杜門不求仕進。

34) 김종섭, 2005 앞의 논문, 191쪽.

35) 《資治通鑑》卷290 後周紀一. 太祖 廣順二年 二月 庚子. 當時唐之文雅於諸國為盛，然未嘗設科舉，多因上書言事拜官，至是，始命韓林學士江文蔚知貢舉，進士盧陵王克貞等三人及第。

36) 김종섭, 2005 앞의 논문, 191쪽.

년 이상 지속되었다. 즉, 950년대에 고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송이 새로운 통일국가로 부상할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광종은 958년 이후 큰 야심을 품은 후주 세종의 통일 계획이 갑작스런 병사를 통해 중단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송 건국 후에도 고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여전히 남중국을 대표하는 남당과 오월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다원적 국제질서가 유지되던 시기에 광종은 북중국 및 남중국의 왕조와 교류하며 이들 국가와 똑같이 칭제건원을 하고 고려가 자립적인 국가임을 내세웠다.

2. 광종대 황제국 체제의 수립과 전방위적 외교 활동

노명호는 다수의 논저에서 고려의 황제제도의 실체를 밝히면서 사료에 나타나는 황제제도의 殘影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고려에서 황제제도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³⁷⁾ 실제로 고려에서는 태조대부터 황제국 제도를 사용하였다. 고려는 초기부터 稱制建元하고 군주인 태조에 대하여 天子라는 위호³⁸⁾를 사용하였다. 고려가 천하의 중심 국가임을 자임한 것이다.³⁹⁾ 태조의 政令은 천자의 명인 詔書 혹은 制書로 지칭되었다. 그의 공식 복장도 본래 천자의 색인 柘黃으로 되어 있었다.

태조대에 시작된 칭제는 성종대부터 현종대 초까지 중단된 시기도 있었으나, 대체로 고려 중기까지 이어졌다.⁴⁰⁾ 이는 화이론자들이 이끌어간 성종대와 달리 고려 전기·중기는 대체로 多元的 天下觀을 가진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노명호는 객관적 현실인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다원적 천하관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유일한 천하가 아니라 다양

37) 노명호, 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지식산업사, 20쪽.

38) 天子는 본래 ‘天命을 받은 천하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왕’에서 격상된 위호인 皇帝라는 용어와 혼용되었다. 노명호,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9쪽.

39) 천하의 중심국 고려가 주변국들의 추앙 혹은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려 전·중기 까지 고려의 자인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노명호, 1999, 앞의 논문, 13쪽.

40) 노명호, 1999, 앞의 논문, 8-9쪽.

한 천하의 병존을 믿는 천하관이라고 하였다. 즉, 고려는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小天下와 다른 소천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자기 인식은 고려가 초기부터 중국과 맺었던 책봉관계도 재조명하게 한다.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16년간 독자적인 연호인 天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태조 16년 후당에서 왕을 책봉함과 동시에 후당의 연호를 받아들였으며, 이후에는 후진의 연호를 사용하였다.⁴¹⁾ 책봉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한·중 관계를 ‘전형적 조공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전형적 조공관계’에서 가장 확연한 징표는 年號와 正朔의 수령 및 사용이다.⁴²⁾ 즉, 황제국이 제후국을 책봉할 때 위의 두 가지를 頒賜해주며, 또 왕을 책봉하는 것이 두 국가의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기원을 살피면 그것이 몽골 복속기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³⁾

즉, 고려 전기에 한해서는 위와 같은 ‘전형적 조공관계’의 수립 법칙이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려가 오대 국가로부터 역서를 하사받은 사례는 단 1회 존재한다. 태조가 후당으로부터 책봉과 함께 역서를 반사받은 것이 그것이다.⁴⁴⁾ 그 뒤에 고려는 오대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나, 역서가 반포된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고려는 송으로부터 역서를 하사받았는데, 이는 고려와의 책봉관계 수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⁴⁵⁾

태조의 독자연호 반포와 책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려가 스스로를 별도의 소천하로 인식하면서도 중국 혹은 북방 왕조에 대해서 충돌을 피하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책봉관계는 형식적인 관계 수립 절차에 불과했다. 권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천자국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동아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앞의 책》, 278쪽.

42) 전용훈, 2017 《한국 천문학사》 들녘, 131-132쪽.

43) 서은혜, 2017 〈고려·조선의 국제관계에서 역서가 가지는 의미와 그 변화〉 《역사비평》 102쪽.

44)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6년 3월 신사. 又賜曆日, 自是, 除天授年號, 行後唐年號.

45) 송은 고려와 책봉관계를 맺은 시기 동안은 고려에 역서를 보내지 않았으나, 책봉과 무관하게 통교하던 시기에 역서를 반사한 것이다. 서은혜, 《앞의 논문》, 2017, 105쪽 참조.

시아의 세력 질서에서 현실적인 위치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광종대로 이어졌다.

광종도 태조와 마찬가지로 칭제건원하였다. 그는 원년(950) 1월에 독자적인 연호인 ‘光德’을 선포하였다.⁴⁶⁾ 이 연호는 951년 12월, 1년 11개월 만에 후주의 연호를 받아들임으로써 바뀌었다. 태조의 사례를 고려할 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다가도 중요한 외교 대상이 나타날 때 표면적으로 중국의 연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려 전기에 있어서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이러한 맥락 가운데 950년대에 광종의 개혁 정치가 단행되었다. 956년 노비안검법을 시작으로 958년에 과거제도의 시행과 960년에 공복제도의 제정 등의 대내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9년 동안 후주의 연호를 사용한 고려는 또다시 연호를 표방하였다. ‘峻豐’은 광종이 960년(광종 11)에서 963년까지 사용한 연호이다. 20세기 초부터 준풍 연호가 실제로 고려의 연호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⁴⁸⁾ 독자 연호 가능성을 옹호한 초기 연구에 비해 이후 연구에서는 피휘설을 긍정하면서 그것이 ‘왕실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였다.⁴⁹⁾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호 반포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함께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960년 연호의 반포는 후주가 멸망한 직후 시점에 이루어졌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 고려는 송이 흥성하게 될 것을 알 수 없었다. 후주 세종이 병사하자, 중원의 통일전쟁은 송의

46) 《고려사》 권2 광종 원년 1월. 建元光德.

47) 고려는 천하를 표방하고 황제를 칭하였으나, 宋이나 강대국으로 부상한 遼에 대해 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王을 칭하기도 하였다. 노명호, 1999, 앞의 논문, 14-15쪽.

48) 今西龍, 〈正豐峻豐の年號〉 《考古學雜志》 3-1, 1912 참조. 김상기는 峻豐이 송 태조의 연호인 建隆을 피휘하였다는 주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1. 고려에서 왕휘 피휘법이 시작된 시점, 2. 고려-송 관계의 발전 상태, 3. 字義를 통해 본 피휘 개연성. 그 결과 그는 준풍이 독자연호였다는 점을 옹호하였다. 김상기, 1959 앞의 논문, 94-98쪽.

49) 한정수, 2012 〈고려-송-거란 관계의 정립 및 변화에 따른 紀年の 양상 - 광종·현종 때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41, 103쪽. 한정수는 특히 광종대에서 현 종대에 이르는 연호 기년이 반거란적 정서에 입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정수, 2012 위의 논문, 129쪽.

건국자 조광윤에 의해서 계속되었지만, 송의 남중국 평정은 1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기획이었다. 후주의 멸망 이후 송이 부상했으나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단명한 오대 왕조들과 같이 다시 멸망할 가능성도 놓후했다. 이를 광종은 다시 황제국을 표방할 기회로 인식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당시 북중국과 남중국, 일본과 거란, 여진으로부터 각종의 문물이 고려로 결집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풍요와 기술적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력과 자신감이 ‘峻豐’이라는 연호의 반포에서 나타났다고 보았다.⁵⁰⁾ 또한 광종은 960년에 開京을 皇都라 하고, 西京을 西都로 삼았는데, 이 또한 황제국에 대한 지향성 아래에서 이루어진 움직임으로 보인다.⁵¹⁾

960년에 독자적인 연호⁵²⁾를 반포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고려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국가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고려는 오대뿐만 아니라 황제국을 세운 십국 나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이러한 외교의 성격은 ‘전방위적 외교’라고 할 수 있다.⁵³⁾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바로 광종대 외교에서 드러나는 고려적인 황제국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종대 황제국 체제하의 전방위적 외교 활동을 살피고자 한다. 광종대의 연호 반포는 두 차례, 950년과 960년에 이루어졌는데, 광종대는 전반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구축한 시기로 보인다. 단, 연호의 표방은 후주가 멸망한 이후 시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당시 외교를 특히 960년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황제국 체제에 대한 지향성 아래에

50) 김대식, 2010 앞의 책, 124쪽.

51) 《고려사》 권2 광종 11년 3월 15일 갑인. 定百官公服. 改開京爲皇都, 西京爲西都.

52) 본 글에서는 당시의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광종이 960년 독자 연호를 반포하였다고 보고자 한다.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것이 송의 연호를 피휘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본 글의 논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의 연호가 ‘峻豐’으로 피휘되었다면, 이는 태조와 왕실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는 광종 초기에 왕건 동상을 세운 사실과 아울러 고려했을 때 고려 초기 황제제도가 연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명호, 2012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 황제제도 · 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106-128쪽 참조.

53) 김대식, 2010 앞의 책, 127쪽.

958년 과거제도도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제시되는 표는 고려와 후주의 교류를 보여준다. 고려는 후주가 존속한 9년 동안 7차례 사신을 파견했고, 후주는 고려에 5차례 사신을 파견했다. 고려가 사신을 파견한 일차적인 목적은 토산물을 바치는 일이었으며 그 결과 후주에 의해서 4차례의 책봉을 받았다.⁵⁴⁾ 그러나 958년을 기점으로 두 국가 사이에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의존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고려와 후주의 교류]

연도	방향	사행 기록	사신	목적	사료
951년	고려 → 후주	정월, 廣評侍郎 徐逢 등 97인이 朝貢함	서봉	조공	③ ⁵⁵⁾
951년	후주 → 고려	2월, 광종을 特進 檢校大保 使持節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兼 御史大夫 高麗國王으로 삼고 衛尉卿 劉暉와 通事舍人 顧彥浦에게 책봉하도록 명함, 그러나 길에서 사망	유호	책봉	③
952년	고려 → 후주	2월, 廣評侍郎 徐逢 등 97인을 보내 조공, 7월에 高麗僧 思泰가 토산물을 바침 ⁵⁶⁾	서봉	조공	⑥
952년	고려 → 후주	廣評侍郎 徐逢을 보내 토산물을 바침	서봉	방물	①②
953년	후주 → 고려	衛尉卿 王演과 將作少監 呂繼贊을 보내 왕을 特進 檢校大保 使持節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兼 御史大夫 高麗國王으로 삼음	왕연	책봉	①②③⑤
955년	고려 → 후주	大相 王融을 보내 토산물을 바침	왕융	방물	①②③④ ⑤⑥ ⁵⁷⁾
955년	고려 → 후주	廣評侍郎 荀質을 보내 새 황제의 즉위를 하례	순질	하례	①②③④
956년	후주 → 고려	將作監 薛文遇를 보내 왕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로 뒷붙여 책봉, 百官의 衣冠은 중국의 제도를 따르게 함. 전 節度巡官 大理評事 雙冀가 병에 걸려 머무르게 됨	설문우	책봉	①②
958년	후주 → 고려	尙書水部員外郎 韓彥卿과 尚輦奉御 金彥英을 보내 비단(帛) 수천 필을 가지고 와 銅으로 바꾸어감	한언경	동 구입	①②③⑤
959년	고려 → 후주	佐丞 王兢과 佐尹 皇甫魏光을 보내 名馬와 織造하여 만든 웃옷, 활과 칼 등을 바침	왕궁	물자 바침	①②③④ ⑥⑦
959년	고려 → 후주	《別序孝經》 1권, 《越王孝經新義》 8권, 《皇靈孝經》 1권, 《孝經雌雄圖》 3권을 바침	-	책 바침	①②③④ ⑤⑥
959년	후주 → 고려	左驍衛大將軍 戴交를 보냄	대교	파견	①②④⑤

54) 여기에 제시된 산법은 김대식을 따름. 김대식, 2010 앞의 책, 111쪽.

959년	고려 → 후주	구리 50,000근과 紫水晶·白水晶 각 2,000개 를 바침.	-	구리 바침	①③④⑤ ⑥
------	---------	---------------------------------------	---	----------	-----------

고려의 對 后주 교류는 광종 2년(951) 정월에 廣評侍郎 徐逢을 비롯한 97인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후주에 도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隱帝(931-951, 재위: 948-950)를 살해하고 제위를 찬탈한 곽위가 후주를 세운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고려가 실제로 사신을 파견하고자 한 국가는 後漢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주의 곽위는 이 사행단을 자신에게 파견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대내적인 인정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인 인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도 후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대외적인 국가 승인(diplomatic recognition)의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五代會要》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후주 태조가 951년 파견한 사행단은 사행길에서 죽어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는 951년 12월부터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⁵⁹⁾ 이는 고려가 후주와의 정식 외교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려는 또다시 후주에 조공하였고 이듬해에 광종이 高麗國王으로 책봉되었다. 955년에는 고려에서 새 황제 世宗의 즉위를 하례하고 다시 책봉을 받았다. 여기서 중원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의 민감한 반응과 대응을 목격할 수 있다.

위의 기사들은 고려가 중원 왕조에 대해서 형식적이지만 종속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기사는 새로운 인상을 준다. 후주 恭帝(953-973, 재위: 959-960)가 즉위한 959년에는 《別

55) 사료는 다음과 같다: ① 《高麗史》世家, 권2 ② 《高麗史節要》 권2, 光宗大成大王
③ 《五代會要》 ④ 《舊五代史》 ⑤ 《新五代史》 ⑥ 《冊府元龜》 ⑦ 《文獻通考》

56) 高麗僧 思泰 기사는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7) 《冊府元龜》의 기사는 광종 6년의 기사와 내용이 일치하지만 시기가 한해 앞당겨져 있어 오류로 이해된다.

58) 《五代會要》의 기사가 후주 연호인 廣順 원년으로 기재된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五代會要》 卷30 〈高麗〉. 周廣順元年正月 遣廣評侍郎徐逢等九十七人來朝貢.

59) 《고려사》 권2 광종 2년 12월. 冬十二月 始行後周年號. 이를 통해 우리는 사행단의 일부가 고려에 입국하였거나 그 이전에 보내진 사행단이 귀국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김대식, 2010 앞의 책, 110쪽.

序孝經》 1권, 《越王孝經新義》 8권, 《皇靈孝經》 1권, 《孝經雌雄圖》 3권 등의 효경류를 바쳤다. 고려에서 전적을 보낸 것은 당말 · 오대 시기 오랜 전란을 겪으면서 많은 책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후주 조정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⁰⁾ 뿐만 아니라 후주가 비단 수천 필을 가지고와 銅으로 바꾸어갔다는 958년의 기사는 대등한 무역관계를 연상하게 한다.

959년에 이루어진 고려의 군수물자 제공은 전례가 있었다. 혜종은 동왕 원년(944) 후진에 왕위 계승을 통고하고 후진이 거란을 격파한 것을 축하하였다.⁶¹⁾ 당시 후진의 황제가 혜종을 책봉하면서 보낸 勅書에 고려에서 보낸 병기와 갑옷 등이 매우 훌륭하여 그의 정성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었다:

나. “올려온 表文을 살펴보고, 지난해 3월 1일에 내가 친히 潼州로 가서
契丹을 무찌른 일을 하례하였음을 잘 알았다. 짐은 거란이 信義를 크
게 어기고 여러 번 침략하였기에 친히 군대를 이끌고 傑과 같은 오랑
캐를 평정하였다. 우리의 靈旗를 한 번 들자 광분한 적이 사방으로 달
아났다. 卿이 멀리서 大捷의 소식을 듣고 자못 憤氣를 펼쳐 章表를 보
내 우리 조정에 축하를 하였으니, 그 충성을 아름답게 여겨 마음에 두
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였다.⁶²⁾

칙서를 통해 후진과 고려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방에서 위협을 가하던 거란의 격파는 서로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당시 고려는 북방 왕조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병기와 갑옷을 보냈는데, 이는 광종대에 되풀이된 것으로 보인다.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고려에 위협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고려는 942년 만부교 사건 이후로 단교를 선언하였다.⁶³⁾ 958년 후주 세종은 당시에 연운십육주 지역을 겨냥하였다.⁶⁴⁾ 세

60) 김상기, 1959 앞의 논문, 90쪽 참조. 이러한 견해는 이후 연구에서도 따랐다.

61) 《고려사》 권2 혜종 원년. (甲辰)元年 遣廣評侍郎韓玄珪, 禮賓卿金廉如晋, 告嗣位, 遂賀破契丹.

62) 《고려사》 권2, 혜종 2년. “省所上表, 賀去年三月一日, 親幸澶州, 殺敗契丹事, 具悉. 朕以契丹, 顯違信義, 轒肆侵陵, 親御戎車, 往平桀虜. 靈旗一舉, 狂寇四犇. 卿遠聽捷音, 頗據憤氣, 載馳章表, 來慶闢庭, 嘉乃忠誠, 不忘于意.”

63) 이미지, 2020 <11세기 초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의 변화와 고려-거란 관계> 《한

종이 연운십육주를 점령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거란과 북한의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광종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959년(광종10) 봄에 군수물자를 바쳤다. 이 시기에 후주의 중원 통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의 갑작스런 병사로 인하여 북방 지역의 탈환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으며, 후주의 역사는 곧 막을 내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려가 950년대 말 자신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란에 대한 견제를 후주와의 외교를 통해 풀어가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후주는 고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 북으로는 거란과 북한, 서로는 후촉, 남으로는 남당과 오월을 상대하고 있어 그 돌파구를 고려에서 찾고자 하였다.⁶⁵⁾

고려와 남당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앞 시기의 기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938년(태조 21)에 태조가 남당의 황제로 등극한 烈祖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檄의 형식을 가진 문서를 보냈다.⁶⁶⁾ 즉 한 단계 낮은 계의 문서를 보낸 것이다. 우리는 이를 고려가 중원 왕조와 주변의 십국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였다는 단서로 여길 수 있다. 태조가 이미 후당의 책봉을 받은 상태에서 남당 황제에게도 表를 올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고려가 수신자인 남당의 군주를 ‘皇帝陛下’로 칭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형식적인 차원인 외교문서에서 남당을 한 단계 낮게 대하였지만, 남당을 황제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는 태조대부터 吳(904-937)와 그 후신인 南唐(937-976)과 교류하였으나,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는 이들 국가에 대하여 침묵한다.

국중세사학회》 60, 15쪽.

64) 그는 같은 해 여름에 舒城을 치고 여섯 개의 성과 北漢의 한 도시를 점령하였다.

Naomi Standen, "The Five Dynastie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 Part One: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ed.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129.

65) 김대식, 2010 앞의 책, 107쪽.

66) 정동훈은 檄이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인 表와 달리 황태자나 제왕 등에게 올리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문서를 분석하면서, 수신자를 ‘皇帝陛下’로 칭하였고, 또한 의식이 표와 같았으나, 고려가 ‘臣’을 칭하지 않고, 문서서식이 ‘전’이었던 점을 강조하였다. 정동훈, 2016 앞의 책, 58-59쪽.

《冊府元龜》를 통해서 우리는 광종대 초반에 고려와 남당 사이에 단행된 교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952년(광종 3) 10월에 고려의 사신이 남당에 도착하였다.⁶⁷⁾ 기사는 후주에 보내진 사행처럼 서술되었으나, 淮南이라는 지명은 다른 사실을 시사한다. 후주가 남당 정벌을 시작한 시점은 956년 정월이었기 때문에, 고려 사신이 보내진 곳은 남당의 국토였던 것이다.⁶⁸⁾ 중요한 점은, 고려가 남당에 사신을 보낸 같은 시기에 후주에도 사신을 보낸 사실이다. 광종의 외교는 중원 왕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章僚가 찬술한 사행기인 《海外使程廣記》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장료가 남당의 사신으로 고려에 다녀온 후 그 내용을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⁶⁹⁾ 그의 사행기는 광종 11년(960)에 시행된 공복제도에 대하여도 서술한다. 즉, 출발 시점을 알기 어려우나, 장료는 960년 이후에 귀국했을 것이다. 당시 남당은 958년 후주의 공격으로 회수이남 지역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남당은 후주를 견제해줄 능력과 위상을 갖춘 국가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고려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 또한 황제국 남당의 국력을 인정하며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의 멸망과 동시에 건국한 吳越(907-978)은 오대십국 중에 가장 오래 존속한 국가이다. 오월에서 불교가 부흥한 것은 당말과 오대의 혼란에 따른 반응이라는 견해가 있다.⁷⁰⁾ 이는 오월 불교가 사회적·정치적 안정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월은 불교의 증진을 통해서 옛적 당의 부귀영화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960년대 오월은 남당과 송에 둘러싸여 압력을 받고 있었다.⁷¹⁾ 이러한 상황에서 오월 군주들은 국가를 지

67) 《冊府元龜》卷980 外臣部25 通好 後周 太祖 廣順 2年 10月. 其月 淮南送高麗使陳參等到闕. 見勅有司賜酒食衣服.

68) 허인욱, 2014 〈고려 초 남중국 국가와의 교류〉 《국학연구》 24, 236쪽; 허인욱, 2013 〈高麗後周 관계와 光宗의 영토〉 《전북사학》 43, 91쪽 참조. 광종대에 고려에서 남당으로 보내진 기록은 또 존재한다. 시기를 알 수 없으나, 《高麗史》 악지의 기사에서 소개되는 張晉公이 〈寒松亭〉이라는 곡을 江南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장진공이 사신으로 간 강남은 중국 남당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정확한 사행시기는 알기 어렵지만, 이 기사는 광종대에 남당을 목표로 한 사행이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허인욱, 2014 앞의 논문, 244쪽.

69) 허인욱, 2014, 위의 논문, 237쪽.

70) Albert Welter, *Monks, Rulers, and Literati: The Political Ascendancy of Chan Buddh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20.

키고 변성하게 하는 길이 불교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려와 오월의 교류도 특별히 불교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그런 까닭에 서인지 두 국가의 관계는 매우 대등한 관계로 묘사된다.⁷²⁾ 960년(광종 11) 오월왕 전홍숙(錢弘淑, 929-988, 재위: 948-978)이 중국에서 당 무종의 폐불 때 사라진 《敎乘論疏》를 구하기 위해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960년 무렵 오월의 수도 杭州에서 많은 불교 경전과 주석서 등이 수집되고 정비되었다.⁷³⁾ 또 오대시기에 가장 유명한 법안종 승려로 알려진 永明 延壽(904-975)라는 禪師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永明寺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영명사는 항주에서 새로 설립된 사찰로서 오월 불교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영명 연수는 고려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다. 광종 9년(958) 과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고려에 승과제도가 도입되었다. 첫 승과 급제자는 천태학을 공부한 智宗이었는데, 959년에 급제한 지종은 급제 직후 오월로 넘어가 959년에서 961년까지 영명 연수 아래에서 수학하였다.⁷⁴⁾

광종은 蹄觀을 시켜 오월에 《天台四教儀》를 전달하였다. 오월왕은 八萬四千塔 가운데 일부를 답례로 보냈다. 고려와 오월의 관계는 불경을 요청·제공하고 답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때마다 공식적인 외교사절이 보내졌다.⁷⁵⁾ 당시 불교 교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가 관여하는 사안이었으며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오월왕이 자국에 없는 불경을 고려에 요청한 것은, 그가 고려의 위상과 문화수준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국가는 선진문물을 교환하는 관계로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1) 김대식, 2010 앞의 책, 127쪽.

72) 허인욱, 2014 앞의 논문, 248쪽.

73)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오월의 승려들은 방대한 불교전서 편람을 비롯한 참고 도서를 작성하였다. Benjamin Brose, 2015, Op. cit., p. 105-106.

74) John J. Jorgensen, *Inventing Hui-neng, the Sixth Patriarch: Hagiography and Biography in Early Ch'an*. BRILL, 2005, p. 750. 당시 승려들은 이전 시기와 달리 외교 사행에서 주체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불교를 매개로 한 교류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면에서 국가의 위상과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75) 김대식, 2010 앞의 책, 119쪽.

광종대 오월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 중에는 신라 말에 오월로 피난한 張儒와 오월에서 유학하여 秘書郎을 제수 받은 崔行歸가 있다. 후자는 당대 빈공과에 합격한 최언위의 아들로서, 고려로 귀국하여 광종의 정치에 크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최행귀가 고려에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 오월왕 전숙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고려와 오월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되었다.⁷⁶⁾ 곧, 전반적으로 948년부터 978년까지 재위한 오월왕 錢俶은 광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30년에 달하는 두 국왕의 재위 기간이 거의 일치한 것은 안정적인 교류를 위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두 국왕은 대등한 관계에서 원활하게 교섭하였다.

이처럼 광종대 오대십국과의 전방위적 외교 활동을 살펴보면, 그것이 주로 대등한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으로 드러난다. 이는 고려 스스로가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 대등한 관계란 당시 고려가 모든 국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려는 국가마다 국가의 특징에 맞추어 대우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의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대외적으로도 황제국 고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후주와의 관계에서는 책봉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고려는 동이나 군수물자와 같은 후주의 수요를 때에 따라 채워줌으로써 고려의 국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쳤다. 958년 이후 고려는 같은 황제국으로서 후주의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 대등한 교섭 파트너가 되었다. 물론 이는 국가 간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전제로 하였다. 광종은 거란에 대하여 후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 그러나 남중국의 강자 남당이 후주를 견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국제정세에 빠르게 반응하며 외교상대로서의 고려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고려는 태조대부터 남당과 황제국 대 황제국으로 교류하였다. 남당은 오대 왕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의 계승을 표방한 황제국으로서 고려

76) 허인욱, 2014 앞의 논문, 253쪽.

가 참고하기 좋은 모범이었다. 반대로 남당 사신이 고려에 대해 보고서를 써 올리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고려의 존재감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국인 남당도 고려를 중요하게 인식할 정도로 그것이 확고하였음을 보여준다.

오월과의 관계는 불교를 매개로 한 관계였다. 두 국가는 어려움 없이 불교 경전을 상호 제공하면서 문화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 광종과 오월왕 전숙은 인적인 교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인물들을 인정해주고 등용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갔다.

이러한 황제국 체제를 기반으로 한 외교의 맥락 속에서, 본 글의 핵심 주제인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다.

다. 〈무오〉 9년(958) 여름 5월 처음으로 科舉를 설정하고, 翰林學士 雙冀에게 명하여 進士를 뽑았다.⁷⁷⁾

고려에서 과거제도가 시행된 958년에 이 제도는 이미 중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제도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는 대등한 입장에서 전방위적인 외교를 수행하였다. 같은 황제국인 후주와 남당에서도 과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는 이들 국가의 제도를 참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대 왕조의 과거제도는 당말 과거의 영향을 받아 진사과에서 詩賦를 중시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또 침경의 비중이 낮아지고, 명경과와 동자과는 폐치를 반복하였다. 廣順 3년(953) 후주에서 帖經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언급된 기존 시험 과목은 九經 · 五經 · 明經 · 明法 · 學究 · 三禮 · 三傳 · 《開元禮》 · 三史 · 進士 · 童子科였다.⁷⁸⁾ 이들 중에 고

77) 《고려사》 권2 세가 권2 광종 9년 5월. (戊午)九年 夏五月 始置科舉, 命翰林學士雙冀, 取進士.

78) 《冊府元龜》 卷642 貢舉部, 條制第四. 三年正月戶部侍郎權知貢院趙上交奏九經舉人元帖經一百二十帖墨義三十道臣今欲罷帖經於諸經對墨義一百五十道五經元帖八十帖墨義二十道今欲罷帖經令對墨義一百道明經元帖書五十帖今欲罷帖書令對義五十道明法元帖律令各十帖義二十道今欲罷帖律令對義二十道學究元念書二十道對義二十道今欲罷念書對義五十道三禮元對墨義九十道三傳元對義一百一十道欲三禮於《周禮》儀禮各添義二十道三傳於公羊《狹揅》各添義二十道開元禮三史元義三百道欲各添義五十道進士元添試詩賦各一首帖書二十帖對義五道欲罷帖書別試雜文二首試策並仍舊童子元念書一十

려에서 시행된 시험 과목은 두 과목에 불과했다. 또 후주 세종은 현덕 4년(957), 고려에 과거가 시행되기 1년 전 賢良科와 經學科를 실시하였는데, 이들 과목도 고려에서 시행되지 않았다.⁷⁹⁾

고려는 958년 첫 과거에서 製述科·明經科·雜科를 시험하였다. 즉, 고려의 과거가 후주의 과거 과목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는 과거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쌍기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제도의 소개 및 운영에 쌍기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주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려는 당말의 문풍을 이어받았으나, 과거의 시험 과목은 당 초기에 시행된 과거와 동일하게 시행되었다.⁸⁰⁾

고려가 당시 오대에서 실행되는 제도를 모범으로 삼지 않고 당 초기의 제도를 모범으로 따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려는 당시 실행되던 과거제보다 더 권위 있는 과거의 典型을 참고한 것이다. 당의 멸망을 계기로 다수의 황제국이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황제국의 표본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제도의 시행도 황제국에 대한 지향성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10세기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당시 필요성과 국가 특성에 맞게 관료를 선발하는 가운데 고려도 과거제도를 갖추었다. 고려는 황제국 체제를 갖춘 채, 북중국 및 남중국 국가들과 교류하였으나, 그들의 제도는 따르지 않았다. 더 권위 있는 전형이 되는 당의 제도를 참고하였다.

과거제도의 시행 목표가 왕권 강화에 있었다고 본 기존 연구는 그 제도를 국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그런데 당시 광종이 단행한 전방위적 외교 활동을 살펴보면, 이 시기 고려의 당면과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고려는 대내외적으로 황제국을 표방하고자 하였으며, 이러

四道欲添念通前五十道念及三十道者放及第從之。

79) 『舊五代史』 권117 周書 8 世宗 顯德 4年 10月 丙辰. 戊午, 詔懸制科凡三, 其一曰 賢良方正能直言極諫科, 其二曰經學優深可為師法科, 其三曰詳閑吏理達於教化科. 이와 관련하여 고려에서 과거제도의 시행을 주도한 쌍기의 사행이 956년에 이루어진 사실을 들어, 그가 957년의 개혁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고려가 후주 과거제도의 운영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80) 허홍식, 2005 앞의 책, 34쪽.

한 방향성 안에서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과거제도가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과거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되었는가를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二. 과거제도의 시행과 외교 역량의 강화

1. 외교문서 작성 역량을 갖춘 관료의 선발

광종대 쌍기의 주도 하에 치러진 과거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주로 時務策과 더불어 詩·賦·頌을 시험하였다는 것이 나타난다.

라. 여름 5월. 翰林學士 雙冀를 知貢舉로 임명하고, 詩·賦·頌과 時務策을 시험하여 進士를 뽑게 하였다. 威鳳樓에 임어하여 급제자를 발표하고 [放榜], 甲科 崔暹 등 2명, 明經 3명, 卜業 2명에게 급제를 하사하였다. 쌍기의 의견을 채택하여 처음으로 科舉를 설치하니, 이로부터 文風이 비로소 흥성하였다.⁸¹⁾

마. 〈光宗〉 11년(960)에는 단지 詩·賦·頌만으로 시험을 쳤다.⁸²⁾

이상의 기사를 보면 쌍기가 첫 과거에서 시·부·송과 시무책을 시험하고 또 광종 11년에 시·부·송만을 시험한 것을 알 수 있다.⁸³⁾ 당시 제술과에서 시험한 律詩와 律賦가 요구하는 엄격한 수사적 형식은 바로 四六駢體⁸⁴⁾를 매개로한 글의 작성에 필수적인 요소였다.⁸⁵⁾ 부나 송은

81) 《고려사절요》 권2 광종 9년 5월. 夏五月. 命翰林學士 雙冀知貢舉, 試以詩賦頌及時務策, 取進士. 御威鳳樓, 放榜, 賦甲科崔暹等二人明經三人卜業二人及第. 用冀議, 初置科舉, 自此, 文風始興.

82)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 1. 十一年 只試詩·賦·頌.

83) 조익이 지공거를 역임한 광종 15년(964)에는 다시 시무책을 시험에 포함시켰다.

84) 사류변려체를 변문, 혹은 사류문이라고도 한다. 변려문은 각종의 대우를 사용하고, 4자, 6자의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또 平仄, 압운 등으로 聲音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며, 典故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문장의 함축성을 강조한다. 文辭가 華美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변려문 충집인 蕭統의 《文選》이 작문의 모범 서로 읽혔다. 고문이 일반화되는 조선 중기까지 한국의 문장의 대표적인 문체가 바로 이 변려문이었고, 그 이후에도 館閣文字의 대부분이 이 문체로 지어졌다. 신라

내용보다 외형이 중시되는 장르에 속하며 당시의 문학이 유미적인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영향을 주었다.⁸⁶⁾ 시무책도 고문이 아닌 사류변려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시험과목의 설계는 당시에 이 사류변려체라는 문체의 작성 능력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명경과를 비롯한 잡업도 치러진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특히 ト業이나 醫業은 성종대 이후 기록에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들 분야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 점을 생각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초기에 치러진 과거는 전문지식을 지닌 다양한 능력의 인물을 선발하였는데, 고려 사회의 다방면이 안정되면서 점차 문장 중심의 제술업이 중요해졌다고 정리하였다.⁸⁷⁾

그런데 무엇보다 쌍기 아래에서 시작된 과거제도에서는 시·부·송을 중심으로 한 사류변려체의 습득이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시험에서 사류변려체를 통한 표현 능력을 시험한 이유는 당 멸망 이후의 국제정세와 당시 고려의 대외관계와 연관이 있다.

한반도 정권들은 일찍부터 중국 유학을 장려하고 이를 마친 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貞觀 14년(640) 당 태종이 국자감을 확장하면서 주변 국가 학자들에게 개방하여 수학하게 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의 국학에서 손님 자격으로 공부한 신라 유학생들은 외국인으로서 진사과에 응시하여 관인이 될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821년부터 당 멸망까지 58명이 賓貢科에 급제하고 벼슬을 역임하였다. 신라 조정은 유학생들을 우대하였다.⁸⁸⁾

이들은 귀국하여 주로 文翰職을 맡았으며 당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던 외교문서 작성을 맡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

최치원의 〈檄黃巢書〉과 김부식의 〈進三國史表〉 등은 변려문으로 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호, 2004 《한국 한문학의 이해》 새문사, 49쪽.

85) 하원수, 1995 《唐代의 進士과의 士人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1쪽.

86) 이혜순, 2004 《고려 전기 한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99쪽.

87) 허홍식, 2005 앞의 책, 34쪽.

88) 인사 문제에서 국학 출신보다 당 유학생 출신을 선호한 경우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남동신, 2002 〈羅末麗初 전환기의 지식인 崔致遠〉 《강좌한국고대사》 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76쪽.

다.⁸⁹⁾ 유학생의 정기적인 과견 및 귀국은 문서 작성을 맡을 인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들이 신라 하대부터 문인계층을 형성해 갔다.

당 멸망 이전 한반도 국왕들이 의존하던 도당유학생들이 귀국 후 국내 문서와 외교문서를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류변려체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⁹⁰⁾ 그들이 중국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면서 연습한 것은 곧 작성에 고도의 지식과 문장력이 요구되는 이 문체였다. 그런데 906년에 崔彥撫가 빙공 급제한 당의 마지막 과거가 치러진 후, 중국에서 유학한 빙공과 급제자의 유입이 끊겼다. 이에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춘 인물에 대한 수요가 10세기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崔灝의 《拙藁千百》에 따르면, 오대에 22명의 한반도 출신 빙공과 급제자가 있었다.

바. 進士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본래 唐 나라 長慶 초년부터 성했는데, 金雲卿이란 이가 있어 비로소 신라의 賓貢으로서 杜師禮의 榜에 이름이 올랐다. 이로 말미암아 天祐의 끝까지 무릇 賓貢科에 등제한 이가 58명이 있었다. 五代의 梁·唐에 또 32명이 있었으며, 대개 渤海의 10여 인을 재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국 사람 [東士] 이었다.⁹¹⁾

이 자료는 후량과 후당 때에 빙공과 급제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후량과 후당이 잇달아 건국하고 멸망한 시기를 합하였을 때, 907년에서 936년까지의 기간이다. 그 뒤를 이은 오대 왕조인 후진·후한·후주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거나 고려출신 급제자에 대하여 전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언위의 열전을 통해 그의 형 최광윤이 후진에서 유학하고 빙공과 급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²⁾ 그러나 후한과 후주에 대

89) 최치원이 작성한 외교문서로 《三國遺事》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조에 고려 태조가 928년 견훤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

90) 김대식, 2010 앞의 책, 88쪽.

91) 《拙藁千百》 권2. 進士取人. 本盛於唐. 長慶初. 有金雲卿者. 始以新羅賓貢. 題名杜師禮榜. 由此以至天祐終. 凡登賓貢科者五十有八人. 五代梁唐. 又三十有二人. 盖除渤海十數人. 餘盡東士.

92) 《고려사》 권92 열전5 제신 최언위. 光胤嘗以賓貢進士, 遊學入晉, 爲契丹所虜, 以才見用, 拜官.

래 아무 기록이 없는 사실은 940년대 후반과 950년대에 중국 과거에 급제한 고려인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허홍식은 오대 말과 송 초에 고려 유학생이 출어들에 따라 고려는 문한관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⁹³⁾

즉, 광종대는 국내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필요가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종이 중국인 망명자들을 귀화인으로 받아들여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들 귀화인들은 대륙의 정세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⁹⁴⁾ 그러나 중국인이 고려에 귀화하는 경우는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광종대 과거시험에서 요구된 중요한 능력이 바로 ‘사류변려체를 이용한 문서 작성 역량’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류변려체에 능통한 인물들은 국내 문서와 특히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서 작성 역량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 형식에 부합한 수준의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시기 과거제도의 시행은 당시 고려 조정이 필요한 능력을 갖춘 관료의 자체적인 선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에서 공부한 문한관의 유입이 끊기자, 고려 조정은 관료를 국내에서 양성하였다. 당시에 과거제도의 시행은 관료의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었으며, 국가에서 주도되는 선발로서 인재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급을 의미하였다. 이는 광종대에 이루어진 황제국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녔을 것이다.

徐居正의 《東人詩話》도 광종대 이후로 사류변려체가 흥하였다고 한다.

93) 허홍식, 2005 앞의 책, 26쪽.

94) 허홍식, 2005, 위의 책, 26쪽. 태조 8년(925) 고려에서 廣評侍郎 韓申一과 春部少卿 朴巖을 후당에 파견하였다. 《五代會要》 권30 〈高麗〉 . 後唐同光三年十一月遣使廣評侍郎上柱國韓申一·副使春部少卿朴巖來貢方物. 이때 ‘文士 박암’은 태조 6년(923)에 오월에서 내투한 외국인이었다. 《고려사》 권1 태조 6년 6월 20일 계사. 癸巳 吳越國文士朴巖來投. 즉, 그는 내투한 직후에 곧바로 사행단에 투입되었다. 박암이 내투한 직후에 중국으로 보내진 것은 그가 상당한 문필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정동훈, 2016 앞의 책, 42쪽 참조. 정동훈은 《冊府元龜》의 기사를 따랐으나, 《新五代史》 기록에 따르면 박암은 同光 원년인 923년에 사행에 투입되었다.

사. 고려 광종 현종이후 文官은 詞賦에서 배출됐는데, 사류문체 [韻字] 가 꽃나무가 무성한 고운비단처럼 풍부했다.⁹⁵⁾

또 이제현은 쌍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제도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문풍에 대하여 “오직 곁치례에 흐른 문장[浮華之文]만을 부르짖었다”고 한탄하였다.⁹⁶⁾ 이러한 기록들은 10세기 후반과 11세기초 사류변려체의 유행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사류변려체 글에 대한 작성 능력이 과거제도에서 요구된 유일한 능력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핵심적인 능력 중 하나였다. 이는 당대의 진사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대에 詩賦 위주의 시험으로 정착한 진사과 또한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당시 詔勅이 모두 변려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公文 작성을 위해 문학적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⁹⁷⁾

앞서 소개한 광종대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상기시키면, 당시에 특히 외교문서의 작성이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광종이 고려의 황제국 체제와 국력 강화를 외교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 사류변려체가 가능하게 한 광종대 외교 역량 강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광종에게 외교를 단행함에 있어서 외교문서가 중심이 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형식에 맞는 외교문서의 작성이며, 다른 하나는 외교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에 의한 문서 전달, 곧 사행 正使의 확보이다.

외교문서에서 사류변려체가 사용된 이유는 이 문체가 화려한 형식미를 추구하는 문체였기 때문이다. 典故를 대대로 인용하며 수사적으로 美感을 주는 이 문체는 일반적으로 가장 儀禮的인 문서에 사용되었다. 그 작성에 고도의 지식과 문장력이 요구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95) 徐居正, 《東人詩話》高麗光顯以後。文士輩出詞賦。四六穠纖富。

96) 《고려사》권2 세가 권2 이제현의 찬. 李齊賢贊曰, “光宗之用雙冀, 可謂立賢無方乎? 冀果賢也, 豈不能納君於善, 不使至於信讒濫刑耶? 若其設科取士, 有以見光宗之雅, 有用文化俗之意. 而冀將順以成其美, 不可謂無補也. 惟其倡以浮華之文, 後世不勝其弊云.” 이는 당대 진사과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다. 당 후반기에 經史 지식이 아닌 수사적 문학 위주의 시험 내용뿐만 아니라 진사과 응시자와 급제자의 행실에 대한 비난이 만연하였다. 하원수, 1996 〈唐後半期 進士科와 士人們간의 私的紐帶〉 《東洋史學會》56, 3쪽.

97) 하원수, 1995 앞의 논문, 91쪽.

고려 측 사료에는 전하지 않으나 《冊府元龜》 965권 外臣部에서 광종대 외교문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세종 顯德 2년(955)에 후주 황제가 고려 국왕을 책봉하기 위해 보내온 詔書 형식의 외교문서이다:

世宗顯德二年十一月 以高麗國遣廣評侍郎苟質來賀登極 授其國王王昭 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 制曰：姬旦分疆 肅慎列明堂之位. 武王尊德 朝鮮受箕子之封. 知乃代守東藩 材稱間世 襲衣冠而奉正朔 瞻象魏以走梯航 推誠遠慕於華風 重譯來朝於興運. 嘉乃丕績 宜覃懋恩 [...]⁹⁸⁾

변례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드시 대구를 맞추어야 하며, 4자·6자의 구식과 平仄을 강구하고, 典故를 많이 사용한다. 위의 문서도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문서이다. 대구를 맞출 뿐만 아니라, 4자·6자와 7자가 짹을 맞추어 등장하여 평측을 기준으로 단어가 배치되었다. 또 뒷부분에서 《魯語》를 인용한 것을 전고를 사용한 예로 들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사류변례체 사용에만 전문성이 요구된 것이 아니다. 먼저 책봉의 배경, 수봉자의 자질과 덕행에 대한 찬사를 다루고, 책봉호와 수봉자에 대한 訓諭로 마치고 있다.⁹⁹⁾

이러한 내용적인 구성 또한 의례적인 책봉 절차에 맞는 전문적인 문서 작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고려에서는 위와 같은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 예에 맞게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답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료들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외교문서의 전달을 위해서는 문서를 읽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사행의 正使를 맡아야 했다. 또 외국 사신을 접대해야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일어났을 것이다.

950년대의 활발한 외교를 상기시키면, 외교문서의 작성과 전달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958년 이전 고려는

98) 特進 檢校太尉 使持節玄菟州都督 大義軍節度使 上柱國 高麗國王 王昭地控辰韓 風行日域 命氏本神僊之族 炳靈分象緯之精. 為仁自契於太平 既觀絲已述職 囗殊於諸夏來奉充庭. 朕嗣守鴻圖 方崇王道 禮樂征伐之柄 盡出眇躬 山河帶礪之盟 思傳不朽. 但遵聲教 豈限遐遙 俾光燾土之封 更假自天之寵 於戲 儀同三事 無先開府之尊. 冠聳四梁 愈見上公之貴. 琢蒼玉為爾珮 飾豐貂為爾冠 用報好音 且彰柔遠 爾其仰宣朝命 下慰州民. 泛濟水為恩 波還同在. 藻指家山於緇嶺 免詠式微 永為屬國之賓 無闕外臣之禮. 可授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依前使持節 玄菟州諸軍事 行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高麗國王 勳如故. 恭帝以顯德六年卽位 加高麗國王王昭檢校太師食邑三千戶. (《冊府元龜》卷965 外臣部)

99) 정동훈, 2016 앞의 책, 55쪽.

951년, 952년, 954년 그리고 955년에 후주에 사행을 보냈다. 또 956년과 958년에는 각각 후주에서 온 사신을 접대해야 했다. 과거제도가 시행된 958년 당시 후주는 거란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는 중이었다. 후주의 팽창을 목격한 광종은 향후에도 이 관계에 투자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광종은 후주가 959년에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을 짐작할 수 없었다. 또 광종은 후주에 보낼 사신뿐만 아니라, 남중국 국가에 보낼 인재도 필요했다. 952년에 고려 사신이 남당에 보내졌으며, 과거제 시행 직후인 광종 10년(959) 장료의 사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950년대 후반에 집중된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는 외교를 수행할 새로운 인재에 대한 증가한 수요를 짐작하게 한다.

과거제도의 시행은 외교문서 작성 역량을 갖춘 관료의 선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과거제도의 시행 이전, 950년대의 외교문서의 작성은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종대에 활동한 인물에 대한 최승로의 평을 살펴 필요가 있다:

아. 雙龜를 등용한 뒤로부터, 文士들을 높이고 중용하여,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재능 없는 사람[非才]들이 지나치게 등용되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별안간 승진하여 일 년[歲時]도 안 되어 갑자기 재상[卿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저녁마다 사람을 불러 접견하시고, 어떤 때는 날마다 불러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정사에 태만하시니, 軍國의 중요한 일은 막혀서 통하지 않았고, 마시고 먹는 잔치가 길게 이어지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南北庸人이 다투어 청탁하고 의탁하였는데, 지혜와 재능이 있는지는 논하지 않고 모두 특별한 은혜와 예절로써 대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後生은 다투어 나아가고, 오래도록 덕 있는 자들은 점점 쇠락하였습니다. 비록 華風은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중화의 훌륭한 법식은 취하지 못하셨으며, 중화의 선비는 예의로 대우하셨지만, 중화의 현명한 인재는 얻지 못하셨습니다.¹⁰⁰⁾

100) 《고려사》 권93 열전 권6 제신 최승로. 及雙龜見用以來，崇重文士，恩禮過豐。由是，非才濫進，不次驟遷，未浹歲時，便爲卿相。或連宵引見，或繼日延容。以此圖歡，怠於政事，軍國要務，壅塞不通，酒食讌遊，聯綿靡絕。於是，南北庸人競願依投，不論其有智有才，皆接以殊恩殊禮。所以後生爭進，舊德漸衰。雖重華風，不取華之令典，雖禮華士，不得華之賢才。

일찍이 이기백은 최승로가 비판한 ‘南北庸人’을 후백제 계통과 발해 계통으로 이해하였다.¹⁰¹⁾ 그는 광종이 등용한 인물들이 최승로와 같은 신라계의 비판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후삼국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의 구분법은 이후 학계에서 장기간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사용된 이유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광종의 지지세력을 정확히 지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 건국 이전에 형성된 혈연 혹은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를 통해 정치세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적지 않다. 특히 광종대에는 출신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최승로가 광종의 지지세력의 능력을 평가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庸人’은 “지극히 평범해 능력이 없는 인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최승로의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의 평가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의 발언을 통해 최승로가 그가 지칭한 대상과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식은 그의 연구에서 최승로가 지칭하는 대상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그도 광종의 개혁이 ‘後生’과 ‘南北庸人’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용인 중에 후주인 쌍기를 비롯한 오월에서 유학하여 秘書郎 을 제수 받은 최행귀, 오월에서 귀국한 張儒, 그리고 남당에서 귀화한 蔡仁範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었다고 보았다.¹⁰²⁾ 설명을 덧붙이자면 ‘남과 북’은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의 남과 북을 말한 것이다. 이는 당시 북쪽에 후주가 있었으며 남중국에 남당과 오월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때 매우 설득력이 높은 설명이다. 당시 최승로와 이들이 구별되는 점은 바로 ‘외국 경험’에 있었다.

다만 ‘남북용인’이 쌍기와 채인범과 같이 오대십국 사람으로서 고려에 귀화하여 활동을 펼친 인물들이라면 이 범주에 고려인 유학생 최행귀나 오월에 피난 간 장유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두 사람보다는 광종대부터 귀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민 출

101) 이기백, 1970 〈新羅 統一期 및 高麗 初期의 儒教的 政治理念〉 《大東文化研究》 6·7合輯, 155쪽.

102) 김대식, 2008 〈高麗 光宗代의 對外關係〉 《史林》 29, 122쪽.

신 王融이 남북용인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남북용인을 귀화인에 한정시킬 때, 후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해진다.

귀화인 쌍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광종 7년(956년)에 등용되었는데 벼슬을 뛰어 넘어 元甫 翰林學士에 이르렀으며, 文柄을 맡았다. 그는 과거 제도의 설치를 건의하고 여러 차례 과거의 知貢舉를 맡았는데, 이는 모두 그의 열전에 서술되었다.¹⁰³⁾ 한림학사를 역임한 쌍기가 광종의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그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쌍기는 중국 출신 문관으로서 과거에 합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¹⁰⁴⁾, 또 첫 과거 시험에서 사류변려체를 매개로 한 구사 능력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사류변려체에 능통했을 그가 역임한 翰林學士직에 주목하고자 한다. 광종대에 한림학사를 역임한 자들 중에 쌍기, 조익과 왕용은 과거제도의 존속을 책임지는 知貢舉를 맡았다. 이 지공거라는 직임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당시 한림학사는 문학적인 능력을 통해서 왕의 정치를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⁰⁵⁾ 광종대에 金廷彥, 李夢游, 崔行歸는 한림학사를 역임하면서 모두 탑비의 撰者·書者 혹은 刻者로 언급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탑비도 사류변려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국왕에게 더욱 중용되었을 것이다.¹⁰⁶⁾

958년 光祿大夫 太丞 翰林學士 김정언은 전남 광양에 세워진 《玉龍寺

103) 《고려사》 권93 열전 권6 제신 쌍기. 光宗愛其才, 表請爲僚屬, 遂擢用. 駟遷元甫·翰林學士, 未逾歲, 授以文柄, 時議以爲過重. 九年, 始建議設科, 遂知貢舉, 以詩·賦·頌·策, 取進士甲科崔暹等二人, 明經三人, 卜業二人. 自後屢典貢舉, 獎勸後學, 文風始興.

104) 강희웅, 1970 앞의 논문, 261쪽.

105) 당의 한림학사는 황제의 詔勅 작성 등을 맡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여 ‘內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재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원수, 1995 앞의 논문, 105쪽.

106) 고승비문을 문체 면에서 살펴본다면 四六駢儷文으로 된 것도 있고 古文으로 된 것도 있다. 그러나 두 문체는 시기적으로 엄격히 구별되어 나타난다. 이관의에 따르면 신라 哀莊王代(800-809)에 입비된 《高仙寺誓幢和上碑》에서부터 1085년에 입비된 《法泉寺智光國師碑》에 이르기까지 고승비문은 모두 사류변려문으로 되어 있지만, 1125년에 입비된 김부식의 《靈通寺大覺國師碑》와 김부일의 《般若寺元景王師碑》 이후로는 문체가 모두 고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관의, 2019 《고려후기 고승비문 연구 - 정치적·종교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9쪽.

洞眞大師碑》를 짓고 또 958년에서 960년 사이에 세워진 《槐山覺淵寺通一大師塔碑》를 지어 해서로 새겼다.¹⁰⁷⁾ 이는 과거제도의 시행과 같은 시기적 맥락을 가진 사업이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문 찬술을 통해 광종의 치세를 묘사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김정언은 광종을 선조, 특히 태조의 과업을 잊고 불법에 귀의한 임금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태조에 대하여 효도에 힘쳤다고 서술하였다.¹⁰⁸⁾ 이몽유가 작성한 비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¹⁰⁹⁾ 그는 翰林學士·前守兵部卿으로 965년 경북 문경 加恩의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의 비문을 지었다.¹¹⁰⁾ 이와 같이 사류변례체를 사용한 탑비의 찬술은 화미한 문체의 과시와 함께 내용적으로 국왕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었다.

당시 고려에서도 중국 못지않게 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67년에 최행귀가 翰林學士·內議省承旨·知制誥로 있을 때 균여대사의 〈普賢十願歌〉 10수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한시로 번역한 것은 한국문학사상 유명한 사실이다. 최언위의 아들 최행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월에서 유학하여 비서랑을 제수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귀화인들과 같이 당시 중국에서 국내 문서체계에서 사용되는 사류변례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반면 김정언과 이몽유은 자체적으로 문장력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성장 배경은 알 수 없으며 특히 유학경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들 김정언, 이몽유, 최행귀가 광종대 초반에 문서 작성과 특히 외교문서 작성에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광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류변례체 문서 작성에 온전히 이들에게 의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최행귀는 빈공과 급제자의 자녀 및 유학생 출신으로 중국에서 관료생활을 경험하였으나, 나머지 세 인물은

107) 김정언은 또한 975년(광종 26년)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를 지었다. 또 978년(경종 3년)에 세워진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를 찬였다.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葛城末治, 《朝鮮金石攷》東京 國書刊行會, 1974)

108) 장일규, 2010 〈고려 광종대 유교적 정치이념과 崔行歸〉 《한국한논총》 34, 565쪽.

109) 장일규, 2010 〈고려 광종대 유교적 정치이념과 崔行歸〉 《한국한논총》 34, 567쪽.

110)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허홍식, 《韓國金石全文》中世上, 아세아문화사 1984)

전혀 국가 기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광종은 과거제도를 통해서 외교문서 작성에 능통한 관료의 안정적인 선발을 도모하였다.

최승로에 따르면 광종이 남북용인을 비롯하여 ‘지혜와 재능’이 없는 인물들을 대접하였는데, 그 결과 後生도 다투어 나아갔다. 후생은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과거 급제자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광종대 급제자들은 성종대 후반, 즉 최승로 사후 주로 활약하였기 때문에 최승로가 견제할 이유가 없었다. 기록을 살펴면 최승로는 쌍기의 등용 이후 광종대에 활동한 광종의 측근 관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즉, 후생은 짧은 총, 광종 당시에 개인의 문장력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광종을 지지한 최행귀와 이몽유, 김정언과 같은 인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종대는 황제국 체제에 입각한 국정운영과 국제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인력 수요가 증대하였고 외교문서가 더욱 중요해졌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과거시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사류변려체에 능통한 관료의 선발이었다. 급제 후 이들의 주된 임무는 국내외 문서의 작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종대는 특히 외교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고 또 전달하는 인물이 필요했다. 950년대에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소수의 인물이 있었다.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과 시행 초기에 정계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중국에서 성장하였거나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문학적인 능력을 키운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특수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외교문서 작성에 능통한 관료의 선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2. 10세기 후반 대송 외교와 과거제도의 연동

과거제도는 고려 초기에 처음 시행된 후, 19세기 말까지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대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 시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광종대 과거제도가 문관

선발제도로서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결국 당시에 과거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이해한 평가이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광종대 급제자들이 광종대에 크게 활약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된다.¹¹¹⁾ 하지만 여기서 과거제도의 운영과 급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광종대에 급제한 인물들은 성종대에 이르러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과거제도는 광종 중반기 즈음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급제자들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야 주요 관직을 맡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광종대 급제자들이 이후 왕대에서 어떠한 관직에 진출하였는가를 살펴본 다음 과거급제와 외교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고려사》〈選舉志〉에 제시된 광종대 과거급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합하면 총 39명이다.¹¹²⁾ 그러나 현재 성명이 알려진 인물은 겨우 12명이다. 이들은 모두 제술과 급제자들이다. 39명 안에는 총 6명의 明經科 급제자와 3명의 雜業 급제자, 3명의 醫業 급제자가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술과 급제자의 수는 15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명이 알려진 12명의 과거 급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역임한 관직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2: 광종대 과거 급제자의 진출]

급제 시기	급제자	이후의 외교 관련 관직 및 재상직			사료	
		문관직	사행직	재상직		
1차	광종 9	최섬	翰林學士, 知貢舉	-	常侍 《高麗史》	
1차	광종 9	진궁	光文院少監	-	- 《晉光仁墓誌銘》	
2차	광종 11	최광범	(미상)			《高麗史》
2차	광종 11	서희	-	內議侍郎, 사행 정사	內史侍郎, 平章事, 太保 內史令 《高麗史》	《高麗史》
3차	광종 12	왕거	(미상)			《高麗史》
4차	광종 15	김책	左僕射 翰林學士	-	- 《金義元墓誌銘》	

111) 심재석, 2014 《고려 초기 정치사 연구》 도서출판 미주, 218쪽.

112) 《고려사》 권73, 지 권제27 선거1 과목 1 과거장 참조.

5차	광종 17	최거업	(미상)			《高麗史》
6차	광종 23	양연	(미상)			《高麗史》
6차	광종 23	유방현	知貢擧	禮部侍郎	門下侍郎平章事	《高麗史》
7차	광종 24	백사유	翰林學士, 知貢擧	翰林學士, 사행 정사	-	《高麗史》
7차	광종 24	한인경	-	侍郎, 사행 정사	平章事	《高麗史》
8차	광종 25	최량	攻文博士	-	門下侍郎, 平章事, 內史侍郎	《高麗史》

제1차 과거의 장원 급제자인 崔暹은 성종 12년(993)에 한림학사로서 진사를 뽑았으며¹¹³⁾ 15년에도 都考試官으로 급제자를 선발하였다.¹¹⁴⁾ 또 최첨은 성종대에 문하성의 낭관인 常侍를 역임하기도 하였다.¹¹⁵⁾

晋兢에 대한 정보는 그의 후손인 晋光仁의 묘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光文院少監을 역임하였다. 光文院은 태조대 元鳳省을 이어 광종대에 중앙의 교육기관으로서 문한을 맡았다.¹¹⁶⁾

徐熙(942-998)는 광종의 신임을 받았던 서필의 아들이다. 서희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사는 광종대에 이루어진 972년의 사행이다. 당시 서희는 송에 토산물을 바치기 위해 보내진 사행의 正使를 맡았는데, 그 때 그의 관직은 內議侍郎이었다.¹¹⁷⁾ 성종 2년(983)에는 佐丞을 거쳐 兵官御事에 임명되었으며¹¹⁸⁾, 10년 후 거란과의 전쟁에서 內史侍郎과 平章事를 역임하고¹¹⁹⁾, 998년에 太保 內史令으로 죽었다.¹²⁰⁾

金策은 964년에 급제하였다. 이를 계기로 광종이 天德殿에서 잔치를

113)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장. 十二年三月 翰林學士崔暹取進士, 八月, 下教, 賦甲科李維賢等二人·乙科三人·同進士五人·明經三人·明法三人及第.

114)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장. 十五年三月 崔暹爲都考試官, 取進士, 十二月, 下教, 賦甲科郭元等四人·乙科三人·明經六人及第.

115)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김심언. 金審言, 靜州靈光縣人, 初從常侍崔暹學.

116) 허홍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30-31쪽.

117)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23년 8월. 遣內議侍郎徐熙等如宋, 獻方物, 帝制加王食邑, 賦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號.

118) 《고려사》 권94 열전7 제신 서희. 成宗二年, 由佐丞, 拜兵官御事.

119) 《고려사》 권3 세가 권3 성종 12년 10월. 以侍中朴良柔爲上軍使, 內史侍郎徐熙爲中軍使, 門下侍郎 崔亮爲下軍使, 軍于北界, 以禦契丹. 《고려사》 권94 열전 7 제신 서희. 轉平章事.

120)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원년 7월 14일 경오. 秋七月 庚午 太保內史令徐熙卒.

베풀었으며 김책을 관직에 나아가게 하고 公服을 하사하였다.¹²¹⁾ 《金義元墓誌銘》에 따르면 左僕射 翰林學士에 올랐다.¹²²⁾

王舉, 崔居業, 楊演의 급제 후의 삶에 대하여는 알기 어렵다. 柳邦憲은 성종 말, 목종 초기에 지공거로서 과거를 주도하였으며¹²³⁾, 禮部侍郎을 역임하기도 하였다.¹²⁴⁾ 당시 禮部는 尚書省 소속의 六部 중 하나로 외교관계와 백성의 교육·風教 등을 관장하였다. 1009년에 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하였다.¹²⁵⁾

韓蘭卿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종 8년 그와 魏德柔를 송에 보내자 송황제가 두 사람을 光祿大夫로 삼았다.¹²⁶⁾ 《宋史》는 이 사행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¹²⁷⁾ 당시 한인경과 위덕유가 金紫光祿大夫를 제수 받은 점, 이전의 如可라는 승려가 요청한 《大藏經》도 동시에 하사하고 승려도 함께 파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인경을 대표로 한 사행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록을 통해 그가 목종대에 平章事를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⁸⁾

한인경의 사행으로부터 2년 후인 성종 10년(991)에 白思柔가 사신으로 보내졌는데, 한인경의 사행 때 송에서 《大藏經》과 《御製》를 하사한 것을 謝禮하기 위함이었다.¹²⁹⁾ 이렇게 급제자들이 이끈 사행이 서로 연

121) 《고려사》 권74 지28 선거2 과목2 승장의 전례. 十五年 御天德殿, 宴群臣, 命新及第金策釋褐, 賜公服赴宴.

122) 《金義元墓誌銘》(이난영, 《韓國金石追補》 4 아세아문화사, 1976)

123)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장, 十六年八月 禮部侍郎柳邦憲知貢擧, 取進士.

124)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유방현. 柳邦憲, 全州承化縣人. 登第事成宗, 爲禮部侍郎.

12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즉위년 3월. 三月 以柳允孚爲門下侍中, 柳邦憲爲門下侍郎平章事.

12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8년 12월 30일 정축. 遣侍郎韓蘭卿, 兵部郎中魏德柔如宋, 帝並授光祿大夫.

127) 《宋史》卷487 列傳246 外國3 高麗. 宋太宗 端拱 2年. 〈端拱〉二年, 遣使來貢. 詔其使選官侍郎韓蘭卿·副使兵官郎中魏德柔並授金紫光祿大夫, 判官少府丞李光授檢校水部員外郎. 先是, 治遣僧如可賈表來觀, 請大藏經, 至是賜之, 仍賜如可紫衣, 令同歸本國.

128)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10년 7월 14일 무인. 秋七月 戊寅 流平章事韓蘭卿于楊州, 吏部侍郎金諾于海島.

129)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3일 무진. 遣翰林學士白思柔如宋, 謝賜經及御製.

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백사유는 같은 해 2월과 성종 14년(995)에 지공거를 역임하였다.¹³⁰⁾

崔亮의 출기를 살펴보면, 그는 성품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글을 잘 지었다고 한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攻文博士가 되었다. 또 성종의 스승이자 벗이었다. 平章事까지 승진한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¹⁾ 그렇기 때문에 박양유와 서희와 함께 거란의 1차 침입 때 下軍使로 임명되어 군대를 이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종대 과거 급제자들은 과거 급제를 통해 인정받은 능력을 토대로 성종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표에서는 외교 관련 관직에 한림학사와 지공거 같은 문한직과 사행직을 포함시키고, 재상직을 따로 분류하였다.¹³³⁾ 이는 광종대 과거 급제자들이 어떤 외교와 관련된 관직을 역임하였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과거 급제자들의 외교직으로의 진출은 광종대의 당면과제인 외교 역량의 강화와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과거 급제자의 성장을 외교 관련 관직과 연관지어 검토한 기존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외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광종대 급제자들은 성종대에 들어와 다양한 외교 분야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사행을 담당하는 정사를 맡거나 다음 세대의 문한관 및 외교관을 기르는 지공거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 외교 관련 관부에 종사하였다.

130)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장. 十年閏二月 翰林學士白思柔知貢舉, 取進士, 賦甲科崔沆·乙科六人·明經三人及第.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과거장. 十四年三月 白思柔知貢舉, 取進士, 九月, 覆試, 下教, 賦甲科李子琳·乙科四人·明經三人及第.

131)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4년 4월. 夏四月. 平章事崔亮卒. 亮慶州人, 性寬厚, 能屬文. 登第, 爲攻文博士. 王在潛邸, 引爲師友. 及卽位, 遂至大拜, 甚協人望.

132)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10월. 冬十月 以侍中朴良柔爲上軍使, 內史侍郎徐熙爲中軍使, 門下侍郎崔亮爲下軍使, 軍于北界, 以禦契丹.

133) 관직에 진출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품계에 따라 먼저 문한직 혹은 사행의 정사를 맡은 다음 마침내 재상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급제자들이 모두 재상직에 진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료의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지만, 총 4명의 급제자만 확실히 재상직에 진출하였다. 또한 정사를 역임한 인물은 이후에 재상을 맡았을 가능성 이 높다는 예상과 달리, 정사를 역임하지 않은 인물이 재상직에 진출하거나, 사행을 이끈 인물이 재상직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보인다. 즉, 당시 관직 체계에서 승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광종대 과거 급제자 중에 외교 분야에 진출한 인물은 최섬·진궁·서희·김책·유방현·백사유·한인경·최량이다. 즉, 광종대 급제자 중에 그 활동상에 대해 알 수 없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송 외교에 가담하였다. 물론 이 중에서도 직책을 구분해야 한다. 최섬·진궁·김책·최량은 翰林學士나 攻文博士를 역임하여 국내문서 및 외교문서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유방현은 禮部侍郎을 역임함으로써 사신 접대를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물들은 사행에 보내진 서희·백사유·한인경이다. 서희는 광종대에, 백사유와 한인경은 성종대에 송에 파견되었다.

이러한 대송 외교에서의 과거 급제자들의 역할은 광종대 과거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오래된 의문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는 바로 광종 전시기에 걸쳐 선발된 급제자의 총수가 39명으로 굉장히 적었다는 점이다. 강희옹이 등이 지적하였듯이 이들 급제자들을 가지고 ‘官僚的 文治體’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외교라는 전문분야에서 주로 종사하였다면, 소수의 인재들이 선발된 점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로부터 광종대 과거의 기능이 외교 관련 종사자의 선발에만 있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당시 광종이 직면하고 있던 당면과제는 과거제도의 운영을 통해 충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제도와 외교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려면 반대로 성종대에 사신으로 보내진 인물들의 과거 급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종대 사신 가운데 과거 급제 여부를 알 수 있는 인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작업이다. 성종대에 사행의 正使로 보내진 인물들은 12명이 있다.¹³⁴⁾ 이 12명의 사신 가운데 과거 급제가 분명한 인물은 한인경, 백사유와 서희, 元徵衍¹³⁵⁾, 총 4명이다. 아울러 과거

134) 侍郎 金昱의 사행(982년)을 시작으로, 성종 2년에 博士 任老成의 사행과 韓遂齡의 사행, 성종 8년(989) 侍郎 한인경의 사행과 980년 兵官侍郎 韓彥恭의 사행, 그리고 991년 翰林學士 백사유의 사행이 이루어졌다. 994년 元郁의 사행을 마지막으로 대송 외교가 단절되고, 거란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994년 侍中 朴良柔에 이어 995년 李周楨과 李知白 그리고 左承宣 趙之遴이 거란에 보내졌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성종대의 사행은 11차례 이루어졌다. 여기에 993년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서 서희의 역할을 감안하면 12차례의 외교 사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135) 원징연은 《고려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宋史》 고려전 敦化 4년에 그가 성종 11년에 板本 九經書를 도입하기 위해 송에 파견되었다고 서술한다. 先是, 式等復命, 治遣使元證衍送之, 證衍至安香浦口, 值風損船, 溺所賣物. 기록에서 元證衍

급제하지 않은 한언공이 있다. 그의 열전을 살피면,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한 것을 알 수 있다.¹³⁶⁾ 그 이외의 인물들의 과거 급제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도 낼 수 없다. 또 대부분의 경우 사행 관련 정보 이외의 인적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이 알려진 급제자를 중심으로 그 활동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성종대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교 관련 관직과도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광종대 과거 시험은 9년(958)에 시행된 후 광종 25년에 마지막으로 치러졌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과거 급제자들은 중요한 관직에 오르고 정계에 정착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했다.¹³⁷⁾ 초기 급제자들은 성장하여 같은 광종대인 970년대에 관계에서 비교적 높은 관품의 관직을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 사신으로 보내진 급제자는 서희의 경우가 유일하다. 972년에 파견된 서희는 송 태종의 호의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송 황제는 制書를 통해 고려 국왕에게 식읍과 공신호를 내려주고 사행단에게 송나라 관직에 해당하는 명예직을 내려주었다:

자. 〈광종〉 23년(972)에 〈서희가〉 使命을 받들고 宋에 갔는데, 당시
송에 조회하지 않은 지가 10여 년이 된 터에 徐熙가 이르러 몸가짐
을 법도에 맞게 하니, 송 太祖가 그를 가상히 여겨 檢校兵部尙書를
제수하였다.¹³⁸⁾

이라는 자는 경종 4년(979) 급제한 元徵衍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간주된다. 《고려사》 권2 세가2 4년 3월. (己卯)四年 春三月 賦元徵衍等及第.

1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언공은 다른 과거 급제자들과 실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 낙방한 특수한 경우였지만, 성품이 충민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는 평에서 그가 나이 15세로 光文院 書生이 되고 또 광문원의 內承旨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사행단을 이끌고 송에 갔을 때, 태도와 행동이 예법에 맞으므로 명예직을 제수 받은 사실 또한 그가 고려를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언공의 경우는 특수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한언공 참조.

137) 관직생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인물들에 한해서 검토하였을 때, 급제 후 한림학사를 역임할 때 까지는 평균적으로 26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한림학사직에 오르는데 경우에 따라 18년에서 36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급제 후 사행의 정사로 보내지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5년(최소 12년에서 최대 18년까지)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 12년에서 18년 정도 관계에서 활동한 후에 사신으로 보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광종의 정치가 975년까지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초기 급제자 중에 몇몇은 외교직에 오를 수 있었다.

138) 《고려사》 권94 열전7 제신 서희. 二十三年, 奉使如宋, 時不朝宋十數年, 熙至, 容

그런데 기사에서 고려가 송에 조회하지 않은 지가 10여 년이 되었다는 점이 언급된다. 그리고 실제로 광종대 후반에는 송과의 외교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광종대 송과의 교류를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자.

[표 3: 광종대 고려와 송의 교류]

연도	방향	사행 기록	사신	목적	사료
962년	고려→송	〈임술〉 13년(962) 겨울 宋에 廣評侍郎 李興祐 등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이홍우	방물 바침	《高麗史》 세가 권2
963년	송→고려	겨울 12월 宋의 年號를 사용하였다. 송에서 冊命使 時贊을 파견하였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90인이나 되었고 시찬만 홀로 〈죽음을〉 면하였다므로 왕이 특히 그를 두텁게 위로하였다.	시찬	책봉	《高麗史》 세가 권2
965년	고려→송	宋에 大丞 內奉令 王輅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자, 송 황제가 왕로를 尚書左僕射로 임명하고 食實封 300호와 아울러 官誥를 하사하였다.	왕로	방물 바침	《高麗史》 세가 권2
972년	고려→송	宋에 內議侍郎 徐熙 등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자, 〈송〉 황제가 왕에게 制書를 내려 食邑을 더하고 推誠順化守節保義功臣의 칭호를 내렸다. 서희에게는 檢校兵部尚書를, 副使인 內奉卿 崔業에게는 檢校司農卿 兼 御史大夫를, 判官인 廣評侍郎 康禮에게는 檢校小府少監을, 錄事인 廣評員外郎 劉隱에게는 檢校尚書金部郎中을 내리고 아울러 官誥도 하사하였다.	서희	방물 바침	《高麗史》 세가 권2

사료에서 서희의 사행이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지만, 표를 보면 실제로는 7년 만이었다. 고려와 송의 외교는 962년(광종 13) 광평시랑 이홍우가 송에 보내진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송이 고려가 후주로부터 받은 책봉에 관작을 더하는 것으로 책봉을 시행하였다. 965년 고려에서 왕로를 송에 보냈고, 그 다음으로 긴 공백기 후 972년에 서희의 사행이 있었다.¹³⁹⁾

종합하면 광종대 송과의 교류에서 송은 단 한 차례 책명사를 보냈으

儀中度, 宋太祖嘉之, 授檢校兵部尚書.

139) 이 사행은 여러 어려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송이 여러 해 동안 조공하지 않은 고려에 대하여 책망할 수도 있었으며 고려로서는 송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때 서희가 몸가짐을 법도에 맞게 함으로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며, 고려는 966년부터 972년까지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즉, 두 국가의 관계는 소원했다.

[표 4: 광종대 과거 시험 시행 및 대송 외교]

연도	과거제 시행	사행 여부	연도	과거제 시행	사행 여부
958년	1차 과거 실행		967년		
960년	2차 과거 실행		968년		과거 시험도 시행되지 않고 송과의 외교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961년	3차 과거 실행		969년		
962년		송 사행	970년		
963년		송에서 사행 파견	971년		
964년	4차 과거 실행		972년	6차 과거 실행	송 사행
965년		송 사행	973년	7차 과거 실행	
966년	5차 과거 실행		974년	8차 과거 실행	

위의 표를 참고하면 966년에서 972년까지 송과의 교류가 끊긴 시기에 고려에서 과거의 시행도 정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67년에서 972년 사이에는 고려에서 급제자를 선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내부적인 요인과 연결 짓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으나, 수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외교문서를 작성할 관료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송나라와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교 역량을 가진 새로운 인재의 선발이 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송나라가 중원통일을 이루자 상황은 바뀌었다. 송나라는 971년 남한을 멸망시키고, 남당을 굴복시키는 등 남중국을 평정하였다. 송 태조는 970년대에 들어와 마침내 중원의 霸者가 되었다. 이는 그 동안 고려와 교류하던 남당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예를 들면 광종 21년 (970)에 고려에 귀화한 蔡仁範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¹⁴⁰⁾ 그의 귀화 사례는 당시 남중국이 멸망하는 중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40) 《蔡仁範墓誌銘》에 따르면 그는 江南 泉州持禮使를 따라 고려에 오게 되었는데, 당시 泉州는 남당 지역이었다. 김대식, 2010 앞의 책, 117쪽. 持禮使가 이끄는 사행은 정기사행보다는 임시사행의 성격에 가깝다. 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생각하면, 당시 사행이 송으로부터 반독립적인 위치에 있던 천주 정권에 의해서 보내졌음을 생각할 수 있다. 1년 후인 971년 11월에 남당이 唐이라는 국호를 바탈당하고 송의 속국인 江南國으로 편입되었다.

통일된 중원 왕조의 존재는 무시될 수 없었다. 이에 972년에 고려는 内議侍郎 서희를 송에 파견하였다. 송의 입장에서 후주 세종의 요 평정이 중단된 이후 거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에 대한 대비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고려도 황실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굳건해진 요나라를 위협으로 여겼다. 이에 통일 국가인 송과의 단결이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

이 때 시작된 양국의 관계 변화는 특히 경종대에 드러난다. 송은 976년 11월 경종에 대한 책봉사를 보냈다. 그때부터 경종은 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류를 행하면서 거의 매년 사신을 보냈다. 즉, 오대십국의 멸망 후 경종대에 비로소 송에 대한 적극적인 사신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비해 광종대 대송 외교는 다소 소원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종대 후반 과거 제도가 정체된 사실은 과거 제도의 운영이 고려의 대외관계와 연관지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종대 과거제도의 운영은 당시 대송 외교와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 과거 시험에서 외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광종대 이후에도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과거제도의 운영 주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知貢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0세기 후반 지공거의 특성은, 광종대를 넘어 경종대, 성종대 과거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에 중요하다. 지공거는 과거제도의 성격 및 존속과 관련된 要職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서 지공거와 급제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당 후반기 진사과 합격자와 지공거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座主門生’ 관계가 중요해졌다. 당시 사적이며 상호적인 의존을 통해 형성된 집단적 유대관계는 진사과 출신에 국한되어 있었다.¹⁴¹⁾ 그 이유는 진사과 시험의 성격과 연관이 있다. 시와 부를 중심으로 창작 능력을 요구하는 이 시험에서 지공거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해 지공거가 직접적으로 실력을 평가하고 영향력을

141) 하원수, 1996 앞의 논문, 5쪽.

행사할 수 있는 시험이 진사과 시험이었으며, 이는 특별히 실력이 있는 인물이 지공거를 맡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고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표에서 10세기 후반 고려에서 지공거를 역임한 인물들을 정리하였다. 광종대 과거가 처음 시행된 시기에는 주로 쌍기와 같은 귀화인에 의존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표를 살피면 이 현상이 이후 왕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10세기 후반 지공거의 동향 및 지공거 역임 시 관직]

지공거	지공거 역임 시기	역임 횟수	역임 시 관직	외교 경험	사료
쌍기	958년, 960년, 961년	3회	翰林學士	사행 참가	《高麗史》
조익	964년	1회	翰林學士		《高麗史》
왕옹	966년, 972년, 973년, 974년, 977년, 979년, 983년, 984년, 988년, 989년, 994년	11회	翰林學士	954년 사행 정사	《高麗史》
이몽유	983년, 986년, 987년	3회	左執政 ¹⁴²⁾		《高麗史》
백사유	991년, 995년	2회	翰林學士	991년 사행 정사	《高麗史》
최첨	993년, 996년	2회	翰林學士		《高麗史》
유방현	997년	1회	禮部侍郎	예부 담당	《高麗史》

표를 보면, 한 인물이 일반적으로 두세 차례 이상 지공거를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³⁾ 흥미롭게도 이 시기 지공거들이 모두 외교와의 관련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고려 전기 지공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을 때, 특히 1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다. 광종대부터 성종대까지 지공거를 역임한 인물들은 대부분 외교 경험이 있었다. 10세기에 활동한 7명의 지공거 중에서 4명은 사행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었으며, 1명은 예부에 종사하였다. 문학에 뛰어난 趙翌과 崔暹은 외교문서의 작성을

142) 이몽유는 983년 과거에서 지공거를 맡을 때, 左執政을 역임하고 있었다. 986년과 987년의 과거에서는 그의 역임 시 관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몽유 기타 지공거들보다 일찍 한림학사를 역임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翰林學士·前守兵部卿으로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의 비문을 지은 965년이다.

143) 이는 이후 시기(덕종-문종(1016-1083))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⁴⁴⁾

10세기 대송 외교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로 지공거를 역임한 인물은 王融이다. 그는 954년 후주에 사신으로 파견되는데, 이는 그가 광종대 초반에 이미 왕의 외교 정책에 동원되었다는 뜻이다. 왕융의 출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이루어졌다. 이를 두 가지 견해로 정리하면, 남중국에서 수학했다는 견해와 남중국 출신의 귀화인이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경종 6년(981) 3월 康州 《智谷寺 眞觀禪師碑文》에서 최승로는 왕융이 훌륭한 비문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신하였다:

차. 이에 崔承老가 절을 하고 대답하기를, “閩川에서 拂衣한 王融이라는 사람이 있어서,去年에 驚谷寺 玄覺禪師碑頌 一研을 草作하였사오니, 비록 文學이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명하시면 심력을 다할 것이 오니 바라건대 시험삼아 시켜 보시면 반드시 훌륭한 비문을 지어 올릴 것입니다.” 하였다.¹⁴⁵⁾

‘閩川拂衣者’는 왕융이 ‘閩 지방에서 고려로 귀음해 온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처음에는 ‘閩川’이 오월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¹⁴⁶⁾ 그러나 왕융이 954년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망명 시기가 더 이른 시점으로 상정되어야 한다.¹⁴⁷⁾ 민이 945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를 민 출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수정이 가능했는데, 이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¹⁴⁸⁾

144) 쌍기, 이동유, 백사유, 최설, 유방현의 외교 관련성 혹은 문한관으로서의 성장 배경은 이미 서술한 바 있다. 趙翌은 《補闕集》에서 광종대 최고 인재과 함께 나열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조익은 당대에 유명한 문한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補闕集》序 我本朝以人文化成, 賢儕間出, 賛揚風化. 光宗顯德五年, 始闢春闈, 舉賢良文學之士, 玄鶴來儀. 時則王融·趙翼·徐熙·金策, 才之雄者也.

145) 《智谷寺 眞觀禪師碑文》“崔子拜而對曰有閩川拂衣者王融去載宣草驚谷山玄覺禪師碑頌一研雖文學弗克且心力罔怠希言歷試必進聿修。”

146) 이기동, 1978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歷史學報》 77, 56-57쪽.

147) 閩은 945년에 남당에 의해 멸망하지만, 925년 국왕 王審知가 죽은 이후부터 20년 동안 왕실 내의 왕위계승전으로 나라가 불안정하였다. 이기동은 이러한 전국적인 혼란의 시기에 왕융이 망명하였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이기동은 왕융이 9세기 말경 한반도에 망명해 온 王彥英의 일족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기동, 1978 위의 논문, 18-19쪽.

148) 그의 성이 王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王씨성을 하사받은 고려인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위에 제시된 경종대 사료와 잘 부합하지 않

이색의 『牧隱集』을 통해 쌍기와 왕융이 지공거로서 행사한 영향력에 대한 후대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색은 두 사람을 통해서 고려 사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카. 그러나 어찌 雙冀나 王融처럼 식견이 얕은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文風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雙氏와 王氏가 후생들을 불들어 일으켜서 인도한 공으로 말하면 역시 지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榮華를 듬뿍 안겨주고 남들 앞에 빛나는 영광을 과시하게 하여 한 시대를 격동시킴으로써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과거를 아름다운 것으로 흡모하게 하면서 자기 자제들이 기필코 급제하도록 힘쓰게 한 것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꼭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점차로 젖어들어 집집마다 글을 읽게 된 결과, 한 집안에서 3형제나 5형제가 모두 급제하는 경우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쌍씨와 왕씨의 공이 크다고 할 것이다.¹⁴⁹⁾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쌍기와 왕융이 과거제도를 이끈 10세기 후반에 과거는 생소한 제도에서 흡모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색의 글은 400년 후에 쓰인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나 쌍기와 왕융이 과거제도의 사회적 정착에 기여했다는 후대의 인식은 사실과 그리 멀리 떨어져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즉, 쌍기와 같은 귀화인이었던 왕융은 10세기 후반 과거시험의 대표적인 지공거였던 것이다. 이는 최승로도 언급한 그의 문한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존하는 사례로는 왕융이 작성한 《新羅王金傳加尙父都省令官誥敎書》가 있는데, 이는 975년(경종 1) 10월에 김부를 尙父

아, 이 글에서는 그를 귀화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가 지공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민 사람들이 옆의 국가인 남당의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왕융 또한 남당의 과거 급제자였을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오대 국가의 과거에 응시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왕융이 고려인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과거 급제의 경험 없이 과거 제도의 운영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경을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149) 《牧隱集》 권8 〈牧隱文藁卷之八〉 “豈雙冀，王融之淺淺而爲我文風之始也哉。雖然。雙氏王氏所以誘掖後生者亦至矣。所以榮華夸耀。聳動一時。使愚夫愚婦。皆歎科舉之爲美。而勉其子弟以必得之。未必不自二人始也。是以。薰陶漸漬。家家讀書取第。至於三子五子之俱中焉。雙氏王氏之功大矣。”

都省令에 임명하기 위해 쓰인 국내문서다. 왕융이 광종 초반기에 외교 사신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점과 그가 이와 같은 국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외교문서의 작성도 담당했을 가능성을 추론하게 된다. 10세기 후반 지공거의 자격 요건에 외교와 관련된 전문 능력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제시된 지공거 역임 시 관직을 주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뒷받침 된다. 광종대 첫 과거(958)부터 성종 16년(997)까지는 모든 지공거가 翰林學士를 역임한 채로 지공거를 맡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고려사》 기록에서도 “翰林學士 王融이 知貢舉가 되어 進士를 飾았다”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翰林學士라는 것이 지공거 역임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97년에 유방현이 지공거를 맡은 이후로는 지공거 역임 시의 관직이 변화한다. 유방현은 禮部侍郎을 역임한 채로, 목종대에도 두 차례 더 지공거를 역임하였다.¹⁵⁰⁾ 목종대에는 内史舍人 혹은 中樞院直學士로서 역임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현종대부터 禮部侍郎과 禮部尙書 등 禮部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들이 지공거를 맡은 추세를 살필 수 있다.

997년을 기점으로 지공거 역임 시의 관직이 변화한 것은, 지공거의 성격이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10세기 말의 국제적인 상황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0세기 고려는 오대 왕조에 이어 송으로부터 국왕 책봉을 받으며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광종의 재위 중 950년대와 960년대에는 십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전방위적인 외교를 펼쳤다. 이 시기 대송 교류는 소원했는데, 972년 서희의 사행을 계기로 당시 대외관계는 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경종대와 성종대는 여러 국가가 존재했던 자리에 선 통일국가와 외교관계를 성립했다. 이는 빈번한 왕래와 문화 교류로 특징지어지는 긴밀한 관계였다.¹⁵¹⁾

150)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 1. 穆宗元年正月 賜邦憲所舉甲科周仁傑等二人 [...] 及第.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 1. 三年 柳邦憲取進士.

151) 예를 들면 고려는 988년과 992년에 송으로부터 加冊을 받았으며, 992년에는 송에서 유학하다가 빈공과에 합격하여 비서랑을 제수 받은 崔罕이 귀국하였다.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1년 6월 2일 갑자 및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1년 7월.

이러한 대송관계는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을 계기로 변화하였다.¹⁵²⁾ 이에 고려는 송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송에서 거절하였다. 《고려사》 기사에서는 이로부터 송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고 한다.¹⁵³⁾ 거란과의 1차 전쟁이 994년 양국의 종전 협약으로 종결되자, 고려에서는 994년 2월에 먼저 거란의 연호를 시행하였다.¹⁵⁴⁾ 그리고 2 달 후에 侍中 朴良柔를 파견하여, 고려에서 거란의 正朔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포로 송환을 요청하였다. 당시 고려가 국왕 명의로 전달하게 한 문서가 오대 왕조나 송나라에도 보냈던 表文이었다는 사실로부터 고려가 양국 국주간의 상하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거란 관계에서 외교문서의 형식이 기존 외교관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⁵⁾ 2년 후인 996년 거란에서 고려 성종을 책봉하였다.¹⁵⁶⁾

이와 같은 변화된 대외관계가 997년 지공거직에 변화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한림학사라는 지공거의 자격 요건이 바뀐 것은 과거제도의 운영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지향되었음을 알려준다. 과거 시험을 통해 외교문서 작성 역량을 갖춘 관료의 선발은 여전히 중요했다. 거란과도 초기에 적극적인 사신 파견과 외교문서의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제자들의 외교 담당 관료로서의 역할이 이전 시기만큼 중시되지 않았다. 고려가 패배하면서 교섭상대가 거란으로 정해졌다. 이에 광종대 초반과 같이 황제국 체제에 입각한 외교와 이를 통한 국력 강화는 어려워졌다.

외교 상대가 송에서 거란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중국 출신의 귀화인들이 지공거를 역임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한정적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귀화인이 과거시험을 주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과거제도의 시행이

152) 구산우, 1992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한국사연구》 78, 43쪽.

153) 《고려사》 권3 성종 13년 6월. 六月 遣元郁如宋乞師以報 前年之役. 宋以北鄙甫, 不宜輕動, 但優禮遣還. 自是, 與宋絕. 앞으로 40년 동안 고려의 송 사신 파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뿐이었다.

154)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始行契丹統和年號.

155) 정동훈, 2016 앞의 논문, 96-97쪽.

15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5년 3월 참조.

4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제도는 더 이상 외래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며, 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세기 후반 지공거들이 한림학사를 역임한 것은 고려적인 특징이었다. 후주에서 시행된 과거를 살피면, 지공거가 주로 역임한 직이 禮部侍郎이었다.¹⁵⁷⁾ 997년 고려에서 지공거의 관직이 한림학사에서 예부시랑과 같은 직으로 변화된 사실은, 당시 지공거의 문한관으로서의 능력이 지공거의 중심적인 요소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朝會·交聘·學校·科舉 등의 政事를 담당하던 예부에서 종사하게 된 것은 지공거가 더욱 광범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성종대에는 급제자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성종 8년을 기점으로 급제자가 증가한다. 이는 관료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동시에 광종대와 같이 소수의 외교 역량을 갖춘 인재의 선발이 중심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관료 수의 증가는 성종대에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제도의 정비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¹⁵⁸⁾ 이 시기 과거 급제자들은 더욱 다양한 관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관직체계도 발달하였다. 이렇게 11세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제도는 자체적으로 관료를 생산하는 과거제도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가 변화로 인해 국가의 수요가 변화하고, 과거제도의 운영도 변화하였다. 10세기 과거제도는 매 시기마다 당시 고려의 외교적 당면과제와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7) 徐松 撰; 孟二冬 補正, 2003 《登科記考補正》,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124-1143쪽.

158) 허홍식, 2005 앞의 책, 39쪽.

맺음말

당의 멸망 후, 중화를 대표하는 권력자의 부재는 동아시아에서 권력 공백을 낳았다. 이로 인해 오대십국 시기 동안 동아시아 각국에서 세워진 황제국은 서로를 동등한 외교상대로 인식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 4대 왕 광종은 두 차례 독자연호를 표방하고 또 여러 황제국 제도를 갖추었다. 그의 황제국에 대한 지향성은 당시의 외교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50년대에 고려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송이 새로운 통일국가로 부상할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없었다. 이 시기 광종은 당시 황제국인 후주와 남당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북방 왕조를 모방하지 않고, 당시 황제국의 표본인 당의 모범을 따랐다. 이는 당 초기의 과거제도를 모방한 고려의 과거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황제국의 운영과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를 단행하기 위해 문서 작성과 이를 전달할 사행을 위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 멸망으로 빈공과 급제자의 유입이 끊어진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에 고려에서 관료의 자체적인 선발을 기획하였다. 광종대 쌍기의 주도 하에 치러진 과거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당시 제술과는 四六駢儻體의 작성 능력을 시험하였는데, 이는 국내 문서와 외교문서에 대표적으로 쓰이던 문체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광종은 문서 작성에 능통한 관료의 선발을 통해서 그가 직면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과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광종 전반기에는 사류변려체로 된 비문을 작성한 인물들이 몇몇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950년대의 외교문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단 이들은 중국에서 성장하였거나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문학적인 능력을 키운 자들이었으므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급되는 인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과거제도를 대외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그 운영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을 알 수 있다. 먼저 광종대 과거 급제자들의 대송 외

교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성종대에 모두 대송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 활동 시기가 성종대라는 점은 관료로서의 성장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광종대에 활약하지 못한 점을 강조한 기존 연구와 대비되는 이해이다.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 작성을 위해 소수의 전문가들이 선발된 것이다.

광종대 송과의 관계를 살피면, 당시 두 국가의 관계는 매우 소원했다. 966년에서 972년까지는 교류가 끊겼다. 바로 이 시기에 고려에서 과거제도의 시행도 정체되었다. 즉, 수요가 줄어든 시기에 과거시험의 실행 빈도도 줄어든 사실은 과거제도가 오로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송의 중원 통일을 계기로 한 과거제도의 재시행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마지막으로 지공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쌍기와 왕융과 같은 귀화인의 역할이 광종 초기의 과거를 넘어서 성종대 말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10세기 말, 성종 16년을 기점으로 지공거의 역임 시 관직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과거제도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과거제도의 시행을 ‘왕권 강화’라는 목적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당시에 과거제도가 시행되어야만 했던 필요성과 고려의 당면과제에 주목하였다.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제도의 시행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광종은 황제국 체제의 운영과 표방과 보조를 같이한 인적 수요에 의하여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과거 시험과 외교문서의 관련성, 과거의 운영과 외교 사행의 빈도수, 그리고 10세기 과거를 주도한 지공거의 성격은 광종이 과거제도의 시행을 통해 추진한 외교 역량의 강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과거제도의 시행이 외교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제 관계를 함께 고려한 관점을 확보할 때, 10세기 과거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한 것을 제시하는데 본 글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1) 한국측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遺事》 (이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拙藁千百》 《牧隱集》 (이상 한국학종합 DB)

2) 중국측 사료

《舊五代史》 《新五代史》 《文獻通考》 (이상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五代會要》 (王溥 撰, 2004 《五代會要》, 杭州: 杭州出版社)
《冊府元龜》 (王欽若 · 梁億 撰, 1960 《冊府元龜》, 北京: 中華書局)
《資治通鑑》 (司馬光 編著, 2007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宋史》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十國春秋》 (吳任臣 撰, 1983 《十國春秋》, 北京: 中華書局)

2. 연구 논저

1) 연구서

김대식, 2010 《고려전기 중앙관계의 성립》 경인문화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한국사 15.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노명호, 2019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사료적 특성》 지식산업사.

노명호, 2012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 황제제도 · 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심재석, 2014 《고려 초기 정치사 연구》 도서출판 미주.

이기백, 1981 《고려광종연구》 일조각.

- 이규호, 2004 《한국 한문학의 이해》 새문사.
- 이관의, 2019 《고려후기 고승비문 연구 - 정치적 · 종교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순, 2004 《고려 전기 한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용훈, 2017 《한국 천문학사》 들녘.
- 정동훈, 2016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원수, 1995 《唐代의 進士科의 士人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홍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 Albert Welter, *Monks, Rulers, and Literati: The Political Ascendancy of Chan Buddh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Benjamin Brose, *Patrons and Patriarchs: Regional Rulers and Chan Monks during the Five Dynasties and Ten Kingdoms*. Studies in East Asian Buddhism, 25, 2015.
- John J. Jørgensen, *Inventing Hui-neng, the Sixth Patriarch: Hagiography and Biography in Early Ch'an*, BRILL, 2005.
-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2) 연구논문

- 강희웅, 1970 〈高麗初 科舉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한국의 전통과 변천》
- 김종섭, 2005 〈五代 科舉의 施行과 作用〉 《中國史研究》 36.
- 김대식, 2008 〈高麗 光宗代의 對外關係〉 《史林》 29.

- 김상기, 1959 〈고려 광종의 치세〉 《국사상의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
- 김용덕, 1959 〈高麗 光宗朝의 科舉制度問題〉 《중앙대학교논문집》 4.
- 구산우, 1992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한국사연구》 78.
- 남동신, 2002 〈羅末麗初 전환기의 지식인 崔致遠〉 《강좌한국고대사》 8.
- 노명호,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 서은혜, 2017 〈고려·조선의 국제관계에서 역서가 가지는 의미와 그 변화〉 《역사비평》 121.
- 이기동, 1978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歷史學報》 77.
- 이기백, 1959 〈高麗初期에 있어서의 五代와의 關係〉 《論叢》 1.
- 이기백, 1970 〈新羅 統一期 및 高麗 初期의 儒教的 政治理念〉 《大東文化研究》 6·7合輯.
- 이미지, 2020 〈11세기 초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의 변화와 고려-거란 관계〉 《한국중세사학회》 60.
- 장일규, 2010 〈고려 광종대 유교적 정치이념과 崔行歸〉 《한국한논총》 34.
- 조좌호, 1958 〈麗代의 科舉制度〉 《歷史學報》 10.
- 최종석, 2015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 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 하원수, 1996 〈唐後半期 進士科와 士人們간의 私的 紐帶〉 《東洋史學會》 56.
- 하현강, 1974 〈豪族과 王權〉 《韓國史 4: 高麗 - 高麗 貴族社會의 成立》 국사편찬위원회.

한정수, 2012 〈고려-송-거란 관계의 정립 및 변화에 따른 紀年的 양상 - 광종·현종 때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41.

허인욱, 2014 〈고려 초 남중국 국가와의 교류〉 《국학연구》 24.

허인욱, 2013 〈高麗·後周 관계와 光宗의 영토 확장〉 《전북사학》 43.

Hugh Clark, “Why Does the Tang-Song Interregnum Matter?: A Focus on the Economies of the South.” *Journal of Song-Yuan Studies*, Volume 46, 2016.

Naomi Standen, “The Five Dynastie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 Part One: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ed.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aul Jakov Smith, “Introduction”,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 Part One: The Sung Dynasty and Its Precursors, 907-1279*, ed. Denis Twitchett and Paul Jakov Smit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Sixiang Wang, “The Sounds of Our Country: Interpreters, Linguistic Knowledge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Early Chosŏn Korea (1392–1592)”, in *Rethinking East Asian Languages, Vernaculars, and Literacies, 1000–1919*, ed. Benjamin A. Elman (Leiden, Netherlands: Brill, 2014).

徐松 撰; 孟二冬 補正, 2003 《登科記考補正》,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今西龍, 1912 〈正豊峻豊の年號〉 《考古學雜志》 3-1.

[Abstract]

10th Century Goryeo's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xamination System

Rahel Plasse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reinvestig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examination system under King Gwangjong (r. 949-975) in the light of 10th century diplomatic relations. As the fourth ruler of the newly founded Goryeo dynasty, Gwangjong conducted a series of reforms that have been interpreted as designed to strengthen royal power. Reasonable as this assumption may initially appear,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graduates as well as their rather modest role under the king's reign suggest that it does not sufficiently explain the func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during his times.

As recent research has shown, Gwangjong's rule can be characterized by active engagement in diplomacy. 10th century Goryeo maintain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Five Dynasties in the North of China as well as several of the Ten Kingdoms in the South. After the collapse of the Tang dynasty, a power vacuum on the mainland allowed for the formation of several

states, not few of them imitating the Great Tang imperial state. It i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Gwangjong's reign should be understood. Hence,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aims at discerning Gwangjong's imperial ambitions, which are not only reflected in his diplomatic missions: Twice proclaiming his own era name, he also renamed Goryeo's capital 'imperial city' (*hwangdo* 皇都), a rather uncommon practice in Korean history. And although formally accepting investiture by each of the successive Five Dynasties, he effectively positioned Goryeo as an equal player on par with the Chinese states: Maintaining diplomatic relations to several states simultaneously and providing his partners with war supplies, he was able to strengthen Goryeo's international position. Even after the foundation of the Song in 960, these power politics remained relatively unchanged.

In his effort to further increase Goryeo's prestige, Gwangjong seems to have faced a shortage of capable diplomats. Until the downfall of Tang, the Silla kingdom had been eager to send students abroad, making them attend the imperial examinations for foreign visitors. Educated in the "four-six parallel ornate style" (*saryukbyeollyeoche*, 四六駢儷體), those who returned to Silla were qualified for writing official documents. With increasing demand of diplomatic personnel and diminishing numbers of "guest students," during Gwangjong's times the state could no longer rely solely on this reservoir of talents. By introducing the examination system, Gwangjong established an institution that could provide him with capable officials in charge of writing state documents.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focuses on this particular func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tracing its development throughout the second half of the 10th century. The first successful candidates seem not to have played any special role in civil service. Only some 20 years later, under King Seongjong (r. 981-997), the names of successful candidates appear among the roster of higher ranking officials in service of the king. An analysis of

their career paths, however, again discloses their importance in the field of diplomacy, all of them either being lauded for their literary talent (for the most part, with reference to the four-six ornate style) or being actively engaged in diplomatic missions. The Goryeo-Song relationship seems to have exerted direct influence on the frequency with which the examinations were conducted. When the exchange of envoys was sparse, the examinations came to a halt, too. Lastly, changes in the background of the examiners (*jigonggeo*, 知貢舉) during the 10th century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decades, those appointed examiners were selected specifically from the ranks of the Hallim (翰林) scholars. This changed at the end of the 10th century, when the diplomatic equation was altered fundamentally by the Khitan expansion.

Eve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observations, it might be biased to claim that the examination system was established for diplomatic purposes only. Nevertheless, a consideration of Gwangjong's imperial policies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10th century can help to shed some new light on an ancient institution.

keywords: Goryeo, King Gwangjong, examination system, 10th century, diplomatic relations, imperial policies

Student Number: 2018-29385